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가 흔히 보는 교육사는 기존의 공교육제도의 역사이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비판적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비판, 특히 그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18세기의 고드윈 이래 20세기의 Goodman, Illich, Rymer, Gore, Freire 등에 이르는 아나키즘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Anarchism은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체제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므로 그 자율성을 파괴하는 국가를 부정하고, 대표민주제를 포함한 특권계층을 위한 정치체제가 작취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이익의 수단화가 됨을 부정하며, 나아가 권위적 제도를 부정한다. 여기서 학교에 대한 부정은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일 수도 있으나, 대체로 기존의 학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배움터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검토하려고 하는 대안교육제도도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대안교육제도는 오랜 사상의 뿌리를 갖는다. 우리는 평화주의와 국제주의 아니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을 신봉하는 민주주의 사상(제도로서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에서 그 뿌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상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교육사상에서의 그 전통은 루소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것이나 가장 직접적인 것은 무정부주의이다. 그것은 무정부주의라기보다도 아나키즘, 곧 번역하자면 자율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사상이다. 곧 그것은 국가주의와 대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나키즘의 일반과 그들의 교육사상을 검토하고, 아나키즘과 대안교육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나키즘의 교육사상은 우리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아나키즘 자체에 대해서 역겨움을 갖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사상과 예술 및 교육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는 스페인 시민전쟁, 68년 학생운동 및 최근의 Foucault에 이르는 사상운동, 20세기 대부분의 전위예술 그리고 19세기 이래 Illich와 Freire까지의 진보적 교육운동의 기본이 아나키즘이라고 본다. 현대적인 자유교육운동은 68년의 학생운동 이후 촉발되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나 보수적 색채가 가장 강렬한 교육과 사법에 특히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교육과 사법의 민주화는 그것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체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나 오늘 우리의 민주화과정에서도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곧 국가가 만든 학교=국정교과서 학습이고,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수험경쟁은 인생을 단련하는 것으로 유익하며, 모든 아동에 대한 동일내용의 국가중심교육은 민주적이고, 국가가

임명하는 모든 교사는 학생에 우월하며, 유능한 교사는 선의의 체벌 등을 통하여 순종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 등이 정말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교육, 곧 자기결정을 할 줄 아는 자유로운 인간의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고, 수험경쟁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교육은 인간이 아니라 노예를 만드는 것이며, 모든 아동에 대한 능력별 교육이 민주적이며, 교사와 학생은 동등하고, 유능한 교사는 아동의 자율성 신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공포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속에서 공동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참교육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안교육의 전형적 형태를 검토하여 그 의미를 아나키즘에서 찾아보고자 하며 우리 교육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작은 단서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안교육은 선진국의 자유로운 교육현실에서도 예외적인 것이므로 우리와 같은 비자유가 일반적인 교육풍토에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환상처럼 보인다. 국가주의 교육이 체질화된 풍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교육을 소개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교육을 '실험'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겠으나 실험정신에 입각한 과감한 사고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이미 선진국 등에서 모색된 대안교육 학교를 음미해 보는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방법 중 문헌적·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아나키즘과 대안교육에 관한 서적 및 연구논문 등을 분석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취지와 연구에 대한 방법 및 구성범위를 검토 기술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서의 아나키즘 교육이론의 특징부분으로 아나키즘의 특징, 아나키즘 교육론의 원리로서 국가주도의 학교교육 비판, 자유학교운동, 탈학교 운동 등을 고찰했다.

제 3장은 대안학교의 등장배경과 실천원리를 역사를 중심으로 조명 하였다.

제 4장은 아나키즘 교육론의 실천체인 발도르프, 간디, 풀무학교의 아나키즘 교육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교육학교의 운영형태와 대안학교를 사례 분석하여 이를 현 공교육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제 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의 개략적인 요약과 연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연구를 갈음 하였다.

II. 아나키즘 교육론과 대안학교의 상관성

1. 아나키즘의 특징과 교육원리

1) 아나키즘의 특징

(1) 자연론적 사회

아나키즘은 여러 학파들로 분파되어 있고, 각각의 학파들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철학은 자연론적 사회관이 다. 아나키즘의 자연론적 사회관은 ‘자연과의 합치’를 주장한 우주론적, 자연론적 정의관과 인간 이성의 믿음에 바탕을 둔 근대적 자연권 사상이 서구의 휴머니즘적 전통 및 유토피아적 전통과 맞물려 생성된 것이다.¹⁾

“아나키즘은 자연(自然)이라는 아이디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호로비츠(Irving L. Horowitz)의 말처럼 거의 모든 아나키스트들은 ‘자연’이란 개념에 얽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은 아나키즘의 주요한 이론가들의 저작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개념은 아나키즘의 교의, 즉 권위의 거부, 정부 및 국가에 대한 혐오, 상호부조, 소박성, 분산화, 정치에의 직접참여 등의 원천이자 기초가 되고 있다.²⁾

프루동(Prudhon P. Joseph)에 따르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과 권위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원리는 인위적이며, 강제적인 힘과는 무관하고, 그것은 위로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고, 생동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자연적인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크로포트킨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사회는 자연적 성질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1) 방영준,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61.

2) 방영준, 앞의 논문, p.51.

그리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각 성원간의 관계가 과거의 억압과 횡포의 유산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고, 또한 일체의 권력자(그 권력이 선거에 의하여 얻어졌건 상속권에 의하여 얻어졌건 간에)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자유로 성립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자유롭게 승인된 습관이나 풍습에 의하여 규제된 그런 사회이다.”³⁾라고 말하면서 자연적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주장하였다.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자연을 접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은 도덕적 의지의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소로는 인간과 자연의 친교와 합일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근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는 ана키즘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ана키스트들이 설명하고 있는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자율성은 강요된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⁴⁾

개인의 자율성,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모든 ана키스트들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개인주의적 ана키스트들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된다. 대표적인 개인주의적 ана키스트인 슈티르너(Max Stirner)는 “내가 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은 내가 자유스런 의사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권리가 너에게 있다.”⁵⁾

3) 피터 크로프트킨, 『현대과학과 ана키즘』 (서울: 창문각, 1973), p.67.

4) 구승희외, 『아나키. 환경, 공동체』 (서울: 모색, 1996), p.56 참조.

5) 방영준, 앞의 논문, p.63.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슈티르너는 극단적인 개인 예찬은 프루동과 바쿠닌에 의해 보완된다. 프루동은 개인주의를 인간성의 본래적 사실로서, 연합을 그 보완적 귀결로 보고, 개인과 사회의 힘의 균형을 중요시하였는데 프루동은 “나의 양심은 나의 것이고, 나의 정의는 나의 것이고, 나의 자유는 최고의 자유다”⁶⁾라고 선언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찬양하였다. 바쿠닌은 자유는 오직 자유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으며, 또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으며, 자유를 지킨다는 구실 아래 자유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ана키스트들이 주장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 규제된 자유이며, 자연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연대적 자유⁷⁾라 할 수 있다.

(3) 공동체성

아나키즘의 사상에는 공동체(communities)라는 주제가 깊게 깔려있다. ана키스트들이 말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자연 공동체 사회(local community)이상의 것이다. ана키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처신 및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공동체가 기초로 하고 있는 인간개념은 인간이 사회질서 속에서 획득하게 되는 몇 가지 분리되어 있는 역할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차라리 인간의 전체성에 입각하고 있다.⁸⁾

아나키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는 협동과 공생에 기초한 소규모 자연 공동체이다. 아나키즘 공동체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광고와 같은 욕망의 확

6) 위의 논문, P.64에서 재인용.

7) 엠마 골드먼, 『저주받은 아나키즘』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1) 해제.

8) 방영준, 앞의 논문, p.71.

대재생산이 없으며, 욕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라 강제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⁹⁾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는 공동의 인류애에 대한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소규모의 자발적, 자치적, 협동적 지역공동체들이 상호 자유롭게 연합하는 사회가 ана키스트들이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의 목표이다.

아나키스트들의 공동체성은 항상 개인의 자유와 자주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왔고, 이는 자주관리(self-management)를 ана키스트들의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혐오감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프루동은 “중앙집권 하에서의 국가의 거대한 권력적 조직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 개인도 집단도 출선하여 자발적으로 독자적 행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¹⁰⁾고 하면서 국가의 폐지를 통한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 거대한 국가를 대신할 자주적 소집단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꼬문(공동체)을 제시하고 있다. 푸리에(Joseph B. j. Baron Fourier)에 의하면 이러한 꼬문은 내부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관리자이며 중개자이다. 또한 동시에 소비자의 결합체이고, 생산의 단위이기도 하다. 꼬문은 상호간에 자유로 결합하여 연합, 지방, 국민을 형성하며, 꼬문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도 필요 없고, 여론의 영향만으로 충분하다.¹¹⁾ 이어서 바쿠닌은 꼬문의 완전한 독립, 자유 꼬문의 연합 및 꼬문 내부의 사회혁명이 이루어져야만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현대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슈티르너는 인간의 이성애 의해 지배받는 자율적 공동체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고, 진실한 대화와 토론으로 다수가 설득되므로 폭력과 조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²⁾

9) 엠마 골드먼, 앞의 책, p.20.

10) 방영준, “아나키즘의 현대적 조명”, 『아나키즘연구』 2호, 2002. p.19.

11) 피터 크로포트킨, 앞의 책, p.91.

아나키스트들이 그려내는 아나키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동체는 공유된 신념과 가치에 따라, 그것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정도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애착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공통된 신념과 가치를 지닌 인간집단이다. 둘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다양하다. 여기서 구성원은 국가의 대표자, 관료들, 리더들에게 중재 당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또한 아나키 공동체 내의 개인들은 강한 신념과 가치를 광범위하게 공유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고립 속에서 살아간다. 셋째, 공동체는 호혜성이 지배하는 결사체이다. 호혜성이란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엔 모든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낳은 공존의 원칙이다¹³⁾.

(4) 권위에의 저항

아나키즘에서는 본능적인 저항심을 사상의 바탕에 두고, 그것이 신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강제적 규율과 권위에 저항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통치기구에 대한 저항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는 강제적이며, 독점적인 기구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써 강제적이고, 처벌적이며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들에게 모든 통치기구의 권력, 권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 근원이다. 프루동은 국가를 “지성도, 정열도, 도덕도 질식시킨 존재”¹⁴⁾라고 경멸하면서 공직을 가진 사람들 즉 성직자, 행정관, 학술원 의원, 저널리스트, 국회의원 등을 모두 무시했다.¹⁵⁾ 슈티르너 역시 권력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면서 모든 통치기구는 전체적이며, 억압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아나키스트들

12) 방영준, 앞의 논문,(1990), p.57.

13) 엠마 골드먼, 앞의 책, pp.22-23.

14) 하기락, “아나키즘의 일반적 고찰”. 『서강/16』,1986, p.21.

15) 방영준, 앞의 논문(1990), p.84.

은 일체의 신성한 것에 속박되지 않고, 무수한 우상 파괴를 감행한다고 선언하였다. 포르(Seastin Faure)는 국가, 정부, 종교,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가시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자는 누구나 아나키스트다.”¹⁶⁾라고 말하면서 권위에의 저항을 주장하였다. 골드먼은 인간 노예화-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정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 인간욕구를 지배하는 정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 인간욕구를 지배하는 사유재산-로부터의 해방을 자신의 투쟁목표로 삼았고, 말라테스타(Enrico Malatesta)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역설했다.

2) 아나키즘 교육론의 원리

아나키스트들은 권위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강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설득수단에 의지하자면 계몽과 교육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기존의 교육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은 18세기의 고드윈 이래 20세기의 일리히(Ivan Illich)에 이르는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는 학교가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도덕적 사회적 신념을 형성해내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국가주도의 공교육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6) 위의 논문, p.29에서 재인용.

첫째, 학교는 부조리한 사회계층화 기구로써 작용한다. 학교의 가장 주요한 일은 시험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뉘게 된다. 이렇듯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분류작업을 통해 학교는 엘리트와 탈락자를 구분하는 사회계층화 작업에 몰두한다. 학교는 오직 계층화 작업을 중심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묶어 두고 통제하는 모든 활동들은 바로 이러한 계층화 작업을 위한 것들이다. 학교는 교육을 통하여 평등이 보장될 것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평등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뿐 오히려 학교교육을 통하여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재생산된다.¹⁷⁾

둘째, 학교는 사회계층화 작업을 무사히 해내고 계층화된 사회에 구성원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억압적인 통제기구로써 작용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습을 하도록 강요하고, 학년제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막는다. 또한, 등, 하교 시간을 획일화하고 모든 강의에 빠짐없이 출석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학습이나 활동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렇듯 인간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자기 학습을 가능성을 박탈당해 왔다.¹⁸⁾ 이러한 국가주도의 공교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자유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나키즘 교육자들은 주장한다.

아나키즘은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사회경제체의 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상이나 제도가 거부된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나키스트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학생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나키즘에서는 국가주도의 공교육은 그 통제권을 쥔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한다. 아나키즘 교육 사

17) 이한, 『학교를 넘어서』 (서울: 민들레, 1998), pp.44-50 참조.

18) 위의 책, pp.50-54참조.

상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은 기존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가가 시민의 성격과 의지를 방향 짓고 조작하기 위해 이용하는 권위의 무기이다.¹⁹⁾ 다시 말해서 국가 통제의 교육체제가 정치적 도그마를 남발하게 되며, 개인을 유용한 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인간의지의 한계와 범위를 고정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이다. 아나키즘 교육사상가들은 학교와 교사 없이도 진정한 교육과 인간성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공동체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구성원이 잠재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산업화와 근대국가의 형성을 배경으로 발달한 국가주도의 공교육의 확립과 교육의 양적 확대가 교육의 질적인 발달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시도되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이 이러한 교육적 문제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이 자유교육이다. 아나키스트들에 의한 자유교육, 곧 자기결정을 할 줄 아는 자유로운 인간의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고 모든 학생들의 능력별 교육이 민주적이며, 교사와 학생은 동등하고, 유능한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별 교육이 민주적이며, 교사와 학생은 동등하고, 유능한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을 도와주는 교사이다.²⁰⁾ 그렇다면 아나키스트들이 주장하는 자유교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나키스트들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교육이란 특별한 종류의 교육을 하자는 주장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약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육적 폐단을 시정하고 교육의 본래적 모습, 이상적 지식과 같은 그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한정된 학문이나 이해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문의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독단적인 교수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하자는 주장이다. 즉, 자유교육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학교제도

19) 구승희 외, 앞의 책, pp.235-236.

20) 박홍규, “대안으로서의 자유교육학교”, 『교육개발』, 1995, p.59.

교육의 틀을 깨뜨리는 것을 뜻한다.

근대학교 운동을 주도한 페레르(Francis Ferrer)에 의하면 자유교육이란 “모든 조직적 규제와 자연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모든 인위적 장벽들을 없애고, 자연적 본성을 말살하고, 아이들에게 기존의 이념의 주입하는 지식교육과 도덕교육을 폐지하고, 우리 자신을 기만한다는 두려움이 없는 매력적인 환경에서 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접촉하게 하며, 그 안에서 삶에 대한 깊은 감동이 까다로운 학문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²¹⁾이다.

(1) 국가주도의 학교교육비판

고드윈은 국가가 정치권력을 통해 특정 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주입시키려한다고 비판한 최초의 교육비평가이다. 고드윈은 국가주의 교육의 비판에 맞을 올린 초기 아나키스트의 한 사람으로써 1793년 『정치적 정의와 이것이 도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을 정부 당국자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권력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²²⁾

고드윈은 공교육의 내용이 애국심 고취나 국가의 정치, 경제적 권력의 명령에 순응하고 떠받드는데 이용된다고 보았다. 즉,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등장과 시민을 양성하는 국가교육체제의 발전은 인간 이성을 교조적으로 통제하고 암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고드윈은 정의란 모든 국민이 이성을 자유롭게 행사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지도하려고만 하고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가주의 교육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²³⁾

21) 엠마 골드먼, 앞의 책, p.161.

22) 캐리어 클라렌스, 심성보 외 역, 『현대교육의 위기』 (서울: 한길사, 1987) p.260.

23) 송창규, “고드윈의 이성적 아나키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고드윈은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의 마음이 백지와 같은 상태로 육체적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드윈의 사상은 인간 이성이 가져올 진보에 대한 계몽주의적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인간은 항상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므로 덕과 행복을 누리려면 교육을 통하여 이성의 힘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²⁴⁾

또 다른 국가주도의 학교 교육비판자인 슈티르너는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주입받은 지식을 선별하는 우상파괴 작업, 부르주아 도덕의 파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슈티르너는 몇 가지 교육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신념과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관념과 신념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 때 개인이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고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도덕적 명령을 슈티르너는 ‘머릿속의 수레바퀴(Wheel in the Head)’라고 불렀다. 그는 ‘자아를 점유 한다’는 참된 의미가 바로 머릿속의 수레바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둘째, 참된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지의 작용을 통해 신념을 획득해야 한다. 슈티르너는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지식획득 과정은 개인을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단순한 학습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확립함에 있어 자기 자신보다는 권위주의적 기반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종속적인 인간이다. 학습자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냐

p.13.

24) 위의 논문, pp.16-19참조.

25) 조엘 스프링, 심성보역, 『교육과 인간해방』(서울: 사계절, 1985) p.54.

하면 행동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우는데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²⁶⁾

셋째, 교수는 목표를 자기계발에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각성과 실천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슈티르너에 따르면 종교개혁 이후 인문주의 전통교육은 권력의 수단이 되었으며, 보편교육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인문주의 학자의 권위는 손상되었고, 마침내 실제 생활을 위해 훈련된 유용한 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실질적이고 유용한 것만을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실생활을 위한 교육은 격률에 따라 행동하는 원칙적인 인간만을 길러낸다고 슈티르너는 믿었다.²⁷⁾

마지막으로 슈티르너는 도그마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목표와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을 개발하는 이념이 교육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얻은 지식은 의지를 확장시키고 피하는 자기정향(self-direction)의 결과이다. 개인은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스스로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개인이 교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지식의 습득은 개인의 욕구의 결과이며 결국 개인의 의지와 직접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²⁸⁾

(2) 자유 학교운동

아나키즘 교육사상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나키스트 중의 한 사람은 1901년 바르셀로나에 ‘근대학교’를 설립했던 스페인의 교육자 페레르이다. 페레르는 정부가 교육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고드윈이 이미 18세기

26) 캐리어 클라렌스, 앞의 책, p.264.

27) 위의 책, pp.264-265.

28) 위의 책, p.265.

에 경고했던 바대로 학교는 기존제도를 유지하는 중심이 되면서 학생들을 유순하고 명령에 잘 따르도록 조건화시키는 체제에 종속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페레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목표는 교육에 미치는 정부의 권력을 타파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체계 내에서만 행해지는 개혁운동은 인간해방의 목표를 위해 아무것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페레르는 정부가 자신을 지지하는 사회 속에서 급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체제를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교육체제가 하층계급의 환경을 의미 있게 변혁시키는 수단이 되리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존 사회구조가 가난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은 현존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서 민중을 해방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빈곤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은 국가주도의 교육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페레르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배우는 것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과 경제적 향상은 기존의 사회구조 내에서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떤 주요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²⁹⁾

페레르는 합리적 학교가 가져야 할 교육목표는 인간이 한 사람에게 예속된다면 폭정과 노예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만연된 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사회체제를 지탱하는 전통적 관습들의 근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페레르는 학교의 사명을 아이들이 타고난 자발성이 보호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자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 중산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융합시키고 남, 여 아이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29) 앞의 책, p.262.

페레르는 교육에 있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자아 점유교육이다. 페레르는 교조주의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아점유의 교육을 과학과 합리주의의 구조 속에서 이루고자 하였다. 객관적인 과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이성을 사용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이 선량한 시민, 종교적 이간, 심지어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 것은 모두 교조적이고 당위적인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 보았다. 페레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상, 벌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여성교육이다. 페레르는 여성이 아동양육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여성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인간의 자유는 결코 발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거의 모든 사상이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유년기의 감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세기 초 미국의 아나키즘 사상을 이끈 대표자로서 여성해방의 선구자였던 골드먼은 페레르와 함께 남녀공학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골드먼은 개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사람을 아나키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보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골드먼은 철저히 기존의 학교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골드먼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무기력하고, 순응하며, 획일적인 대중을 양산시킨다는 것이다. 기존교육의 궁극적인 기능이 노예정신을 체계적으로 주입시켜 계급 구조를 지속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교육운동은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작업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1906년 골드먼은 교육이 의미를 지니려면 어린이들의 내재적인 역량과 취향의 자유로운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근대학교(Modern School)는

30) 이보형 편, 『미국역사의 새 발견』 (서울: 소나무, 1991), p.355참조.

자유로운 개인과 자유로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골드먼에 따르면 교육이란,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피교육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a process of drawing out, not of driving in)으로 아동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버려두어야 하며, 교사는 아동의 욕구가 표출될 때마다 이에 응하는 민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개인과 공동체를 추구하는 골드먼은 뉴욕의 할렘에서 1910년 6월 12일 ‘페레르 협회(Fererr Association)’를 결성하였다. 이곳에서 근대학교의 예비단계에 해당되는 일요학교와 야간학교를 출범시켰고, 페레르 서거 2주기인 1911년 10월 뉴욕에서 최초의 진보적인 ‘페레르 모던스쿨’을 설립했다. 이 학교는 여러 차례 변천을 겪으면서 1953년까지 존속하였으며, 오랜 동안 미국에서 유일한 진보적 학교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동계급의 자녀를 학생들로 받아들였고, 교사의 상당 부분도 미국 태생의 중간계급과 유태계 이민 출신의 노동계급으로 구성해 교사와 학생간의 평등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결속 할 수 있었다.

근대학교에서 어린이의 모든 잠재능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서 골드먼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교육이다. 작문은 아동들의 경험에 따라 선택된 소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아동의 자기표현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부응하는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교육이다. 그녀는 세상사가 인형극처럼 몇 명의 줄잡이가 전체사건의 진행과정을 조종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즉, 기존의 역사교육이 제왕과 영웅들의 활동만을 강조하여 마치 소수의 지도

자가 역사를 주도하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학교의 역사교육은 격동의 시대, 주요 운동, 인류 발전의 주요시기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진보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인류해방을 목표로 하는 모든 진리에 대하여 존경심을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¹⁾

(3) 탈학교운동

1960년대 후반 일리히는 학교 자체를 문제로 보고 최소한의 탈학교, 즉 학교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리하여 교육을 독점, 지배하는 학교를 제거하고, 교육기회가 평등하다는 신화를 제거하며, 더 이상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고정관념을 파기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탈학교 운동이다. 일리히는 진정한 자율이란 오로지 제도적 형태의 변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리히에 의하면 ‘탈학교(deschooling)’는 모든 학교를 폐지하거나 혹은 학습을 위한 제도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이나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재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³²⁾

일리히에 따르면 학교는 사람들이 적절한 봉사나 보호를 주는 제도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도록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학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기위해서는 형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가진다. 일리히는 사회를 타락

31) 이보형편, 앞의 책, p.357.

32) 이반 일리히, 김광한 역, 『탈학교 논쟁』(서울: 한마당, 1984), p.16.

시켜온 것이 주로 학교이므로 모든 학교를 폐지하고 기술 습득과 인간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발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일리히는 네 가지 종류의 제도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연구해보고 싶어 하는 책, 그림, 테이프, 기계 등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대상에 관한 참조체계들’이다.

둘째, 특수한 기술을 무료로, 돈 받고 혹은 상호교환 형태로 가르쳐 줄 사람을 찾도록 도와주는 ‘기술교환체제’이다.

셋째, 협동학습을 할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동료-연결망’이다.

넷째, 두 번째의 기능교수보다 더 높은 수준과 범위의 조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자 참조 체계’이다.³³⁾

또한 일리히는 학교교육의 기능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정보센터가 될 공공시설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확대된 다양한 의미의 도서관으로 누구든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타자, 낚시, 벽돌쌓기, 역사지식 등 자신이 가진 기술을 등록할 수 있는 장소를 제안한다. 그곳은 정보시설이나 기술시설에서 개인이 배우고 싶은 정보나 기술을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허용된다. 이 같은 교육방식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은 국가에 의해서 세워질 필요가 없어지고,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편성될 수 있다.

33) 이지현 외, 『개인, 공동체, 교육3』 (서울:교육과학사, 1997), p.191.

마지막으로 일리히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체계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특수한 관심거리를 취급하는 신문, 간단한 게시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⁴⁾

2. 대안학교의 등장배경과 교육원리

1) 대안학교의 등장배경

대안학교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의 권위적인 교육방법을 거부하는 학생, 선생, 부모가 함께 이끌어 가는 학교이다. 그러한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는 처음부터 아나키즘 이론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아나키즘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고드윈, 푸르동, 바쿠닌, 크로포트킨에서 콜린워드에 이르는 대부분의 주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들은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생각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모든 면(정신적, 육체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유주의적이면서 합리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학교의 목적은, 푸르동의 말을 빌리면, 노동자, 활동가, 지식인은 결국은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는데 있다는 것이다. 급진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국가기관, 정치인, 그리고 소위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일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사장, 경찰, 사회복지사, 정보기관, 중간관리자, 박사, 그리고 성직자들의 역할은 일반 민중을 지배하는 커다란 위계질서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삼는 좌파는 비교적 드물다. 대부분의 좌파 활동가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은 좋은 것이다’, ‘모든 교육은 좋은 것이다’, ‘교육은 항상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 1867년에 미국의 초

34) 조엘 스프링, 앞의 책, pp.75-76.

대 교육장관으로 임명된 헨리 버나드(Henry Barnard)는 “교육의 목적은 언제나 자유로 이끄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자치적인 교육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믿고 있다. 국가의 교육제도는 맹목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따르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더라도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국민을, 사장의 지시에 대부분 순종하면서도 사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유로써 생각하는 임금노예를 만들기 위해 단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교육제도를 비판한 최초의 비평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은 그의 책 『An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정치적 정의’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가교육사업은 국가의 정부와 떨어질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교육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층이 국가의 틀을 갖출 때 ‘교육’ 또한 지배층의 정치적 고려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³⁵⁾

19세기의 산업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는 크게 변성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였다. 산업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개인들 대신에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노동자들은 시간을 엄수하고, 순종적이면서 수동적이고, 기꺼이 지금의 불평등한 지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다. 나이젤 트리프트(Nigel Thrift)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과 사회개혁가들은, 노동자들의 초기 세대들이 임금노동이나 공장의 작업장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학교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공장노동에 알맞게 길러지기를 바랐으며,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오랜 시간동안 단순한 과제를 가지고 반복 학습하는 것은 좋은 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이들을 노동이나 노동에 따른 피로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이다.”³⁶⁾ 이처럼 대안학교의 지지자들은 구조를 가진 사회를

35) Word, Collin, 1973, “Anarchy in Action, London: Allen & Unwin”, p.81.

36) Schor, Juliet B. 1972,

The Overworked American, N.Y.: Harper and Row, p.61.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나 임금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지배계층의 유지를 위해서는 언제나 피지배계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란시소 페레르(Franciso Ferrer, 1909년에 스페인정부에 의해 처형당함으로써 가장 잘 알려진 자유학교의 지지자)가 말하기를, "지배계급은 항상 피지배 민중들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 신경을 써왔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는 지배 권력은 거의 전적으로 학교교육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학교는 지배계층의 지배도구인 것이다" (37)

그런 면에서, 엠마 골드먼이 말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교육방법은 개인의 해방과 창조적인 사고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표준화'와 '그에 따른 표준적인 인간양성'이 학교의 목표이며, 이것은 마치 감옥의 죄수, 병영의 군인과도 같은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자유의지는 산산이 깨어지고 나서, 갈고 다듬어져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대안학교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나타난다. 대안학교는 불평등한 위계구조의 사회 안에서 자유·자치적인 교육의 확산과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인 학교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대안학교는, 권위적인 교육방식 대신에,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아계발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하나의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한다." (38) 슈티르너에 따르면, 이것은 '복종이 아닌, 자유를 위한 교육'이 될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대안학교운동(The Modern School Movement 또는 The Free School Movement)은 국가와 교회교육의 위험성과 자유·자치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부분적이거나 부합하고자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유·자치적인 교육의 아이디어는, 지식과 배움의 과정은 실제의 생활과 각 개인의 유

37) Harper, Clifford 1970, Anarchy : A Graphic Guide, p.100.

38) Goldman, Emma 1970, Anarchism and Other Essay, N.Y.: Dover Publications, p.121.

용성에 밀접하게 연관돼야 하며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학교는 지나치게 구조화한 사회에서 자아계발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며, 권위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대안학교의 주요 원리는 이것이다. 교육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면서 스스로 알고 싶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감한 장치(sensitive instrument)의 역할을 해야 하며 아이들이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³⁹⁾ 대안학교는 자유·자치적인 교육방법에 기초를 둔다. 넓은 는 의미에서, 자유·자치적인 교육은 자기조절능력이나 판단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사고하면서 모든 형태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주위환경이나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지적 독립성은 그들의 최대 권력이며 이 권력은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는다. 이 권력은 항상 새로운 생각이나 더 나은 것을 위해 쓰여 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횡포(tyranny)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유학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대안학교는 아이들, 그들이야말로 교육과정에서 중심임을 강조한다. 교육은 그런 것이다. 그들에게 주입해서는 안 된다. 대안학교는 상벌이나 시험, 등급이 없다. 지금의 학교의 매일 매일의 고문과 같은 것들.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은 이론보다도 더욱 유용하기 때문에 수업은 종종 공장, 박물관, 들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는 부모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페레르(Ferrer)는 민중대학을 계획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고등교육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알 권리를 가

39) Goldman, Emma 1970, *Anarchism and Other Essay*, N.Y.: Dover Publications, p.60.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시대를 거치면서 관찰자와 노동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이룩된 '과학'은 수업시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는 상호 부조적이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는 것에 그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치교육을 모색하는데 그 기초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대안학교는 개개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아나키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대안학교는 1890년대 후반 이래로 아나키스트운동의 한 축이 되어왔다. 이 대안학교운동은 루이제 미셸(Louise Michel)과 세바스티안 포레(Sebastien Faure)에 의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프란시소 페레르(Franciso Ferrer)는 이들을 프랑스에서 만나게 된다. 그는 1901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자유학교(Modern School)'를 설립하였는데, 1905년까지 유사한 학교가 스페인에 50여개가 있었다.(대부분은 아나키스트그룹이나 노동조합이 지원했으며 1919년부터는 C.N.T.가 그 역할을 했다.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모든 경우에서, 자유학교에서의 자치의 원칙은 지켜졌다.) 1909년에 페레르는 전 세계적인 반대와 명백한 무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에 의해 반란죄로 몰려 사형 당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한 죽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철학까지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대안학교'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일어난 진보교육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에게는 자유학교운동이 자치 사회를 만드는데 충분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다음의 바쿠닌의 말에 동의한다. 각각의 개인이 도덕적이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1. 안전한 출산 2. 노동, 이성, 평등, 자유의 존중에 기초한 전인교육 3. 각자의 인간이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그러면 이

런 사회 환경은 존재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존사회에서 대안학교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정반대의 원칙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나 개인보다 강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그 사회에 압도당하여 결국 부도덕화 한다.”⁴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안학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노동운동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학교는 그저 한낱 사회적 실험으로 그칠 것이며, 그것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바쿠닌은 다음의 국제노동자 연합(the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의 결의를 지지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불충분한 교육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전인적 교육방법에 기초한 민중 교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아나키스트들에게는 교육의 과정도 계급투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일부분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처한 현재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도 모든 해방의 전제조건인 ‘경제적 해방’이라는 커다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⁴¹⁾

20세기 후반에는 강요로부터 해방과 자아 개발을 위한 환경의 창조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실험들이 나타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나타난 ‘자유학교’와 ‘대안적’ 교육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은, 비권위적인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업사회는 이미 고도로 조직되어서 아동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개척하거나 건설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대량생산된 학습 보조 교재와 놀이기구는 획일화 되어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구조화되고 합리화된 상황에서 자유학교(free school) 운동은 자아

40) Bakunin, Michael, 1972, Bakunin's Writings, Guy Aldred, (ed), N.Y.: Random House, p.174.

41) Bakunin, Michael, 1972, Bakunin's Writings, Guy Aldred, (ed), N.Y.: Random House, p.175.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로 발생하였다.

1960년대 활성화되었던 자유학교는 1940년대 ‘자유놀이터’⁴²⁾운동이 발전된 것으로, 이 운동은 사람들이 세계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해방주의적 관심의 표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놀이터를 만드는 기본원리는 오로지 원자재와 공구, 나무토막, 못, 고철, 삽, 그 밖의 집짓는 장비 등으로만 꾸민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공장에서 만든 그네나 시이소 따위는 없다. 어린이들은 직접 놀이터를 세우고, 부수고, 다시 세울 수 있다. 이처럼 자유학교와 자유놀이터는 어린이들에게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자유학교는 권위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식을 자유롭게 접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지 데니슨(George Dennison)에 따르면, 1966년 최초의 거리학교는 급진적이고 실험적이었으며, 거기에는 학년도, 성적표도, 경쟁시험도 없고,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떤 아동도 공부나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이다.⁴³⁾ ‘제1 거리학교’는 고도로 등급화 되고 구조화된 사회에서 학년이 무시되고, 성적표와 시험이 없어지는 변화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교 운동가인 폴 굿맨(Paul Goodman)은 기존의 학교교육이 개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증명서를 떼 주어 사회에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절차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60년대 초에 쓴 『잘못된 의무교육』에서 교육의 실제 기능은 소수 대기업이 거대한 선발과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등급 지어줄 뿐이라고 지적한다. 굿맨은 거대하고 짐스러운 학교체계를 분산시키고 소규모 학교를 세우는 교육계획을 세웠다. 교실 없이도 거리, 상점, 미술관, 영화관, 공장 등이 학습장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유자격 교사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약사, 점원, 공장 노동자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 최초의 자유놀이터는 1943년 코펜하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 착상은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합중국으로 퍼졌다. 스톡홀름에서는 놀이터가 ‘자유도시’로 미니에폴리스에서는 ‘마당’으로,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로빈슨 크루소 놀이터’로 알려졌다.

43) 조엘 스프링, 『교육과 인간해방』, (서울: 사계절, 1985) p.44.

무엇보다 그가 가장 중시 여긴 것은 학교는 ‘비강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앞으로 도시의 학교들도 학생들과 이웃한 지역사회의 요망사항에 따라 지방 분산을 하여 작은 학교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⁴⁴⁾

서구의 대안학교운동은 한국교육계에도 영향을 끼쳐 1990년대부터 대안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직 대안교육이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합의 된 것은 없지만,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 실천이 점차 뚜렷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또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이것이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과거의 기준에서는 정규학교가 될 수 없는 인성교육 중심의 소규모 학교들을 특성화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공인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한 단면이다. 좁게 보면 , 대안교육은 19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교육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기존의 제도 교육과는 다른 대안적 이념과 형태의 교육을 추구하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기존의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을 중심으로 한 비형식 교육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교육 안에서도 이념적으로는 유사한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⁴⁵⁾ 그러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서 대안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마땅히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었거나 제도교육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1990년대 대안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의 등장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이다. 사람마다 이에 관해 생각하는 바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44) 위의 책, p.74.

45) 임종화,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새로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0, p.24.

제도나 형식 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교육과 대안교육을 구분하는가 하면 , 지향하는 가치의 내용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우선, '대안교육'이라는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자. 이것은 자생적이라기보다 영어의 'alternative educat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에도 이미 기존의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쿠퍼(Cooper)는 교육백과사전에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대안학교'의 의미를 "표준적인 '공립학교'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통적인 것과 다른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또 기존의 형식을 유지한 채 내용만을 바꾼 것일 수도 있고 형식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안학교'로 불렸던 학교들은, 다소 급진적인 성격을 띤 것에서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전래의 보수적인 지식교육⁴⁶⁾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른바 '탈학교적'인 형태에서 전통적인 형태와 유사한 학교까지,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안교육이라는 말의 의미가 근원적으로 애매함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애매성은 '대안'이라는 말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즉, '대안'이란 무엇인가를 대체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바, 과연 기존의 교육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교육이 가능한가, 그리고 설사 부분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교육이 보편화 된 후에도 여전히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이라는 말이 정형화된 교육의 어떤 형태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다르며, 또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

46) 이용숙, 김영,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1998), p.55

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교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존의 교육을 불만족스러워하고 따라서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늘 있기 마련이며, 대안교육이란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대안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시도 자체를 지칭할 뿐이다.

다른 하나는, 대안교육을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대안교육은 20세기말의 상황에서 근대 공교육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에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일련의 교육적 노력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독특한 문제의식과 가치지향이 내포되어 있다.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후자의 의미로 이해되는 대안교육이다. 물론 이렇게 이해되는 대안교육 역시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대안교육의 대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할 수는 있다. 우선 두드러진 것은 대안교육이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루소 이후 뚜렷한 전통으로 자리 잡은 아동중심교육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힘과 관료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종래의 학교교육제도에서는 학생 개인의 자유로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아동중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대안교육은 가급적 공교육 제도의 밖에서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학교를 추구한다. 여기서의 제도보다 인간을, 집단보다 개인을,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우선시하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대안 학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니일(Neill)이 섬머힐 학교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아이들을 학교에 맞추기보다는 학교를 아이들에게 맞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것은 학교 또는 학습자 집단의 소규모화이며, 그 속에서 모든 구성원간의 친밀하고 공동체적인 유

대관계가 형성된다.

대안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대안교육은 종래 교육에서 중시되었던 가치들, 예컨대 합리성이나 보편성, 또는 편리함이나 물질적 풍요 등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대안적 가치들을 추구한다. 교과 지식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감성을 중시하고, 노동을 통해 인간 본래의 자립성을 기르고자 한다. 특정한 가치 기준을 획일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각각의 공동체가 지닌 고유의 전통을 중시한다. 또 개인 상호간의 경쟁보다는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한다. 특히 자연을 적대시했던 종래의 태도 대신에 생명 중심 또는 생태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자연과의 공존 교육을 실천한다.

간략하게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대안교육의 대체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을 가진 교육이되, 그 다름의 내용은 제도나 교사보다는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이 중시되는 교육이라는 점과 근대 문명이 소홀히 했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협동과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은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사회의 실현을 추구⁴⁷⁾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안학교의 교육원리

(1) 자발성, 자주성, 주체성의 원리

학생의 주체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대안교육 학교에서는 등하교나 수업출석도 학생의 자발성에 맡긴다. 징벌이나 체벌이 일체 부정된다. 체벌을 가하는 교사는 즉각 해고되는 학교도 있다. 강

47) 정유성, 이종태.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방안연구』(서울: 교육부, 2005), p.16-20

제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조작도 금지된다. 낯은 강제적 교사를 하드보스(hard boss), 조작적 교사를 소프트 보스(soft boss)라고 불렀고 전자보다 후자가 더욱 유해하다고 했다. 이를 프롬(Erich Fromm) 류로 말하면 '드러난 권위'와 '숨겨진 권위'가 된다. 그 어느 것이나 아이들의 자발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교육학교의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수업준비는 전통적 학교보다도 더욱 과중하게 된다. 출석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유능하고 성실한 교사의 수업은 만원이 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교사의 수업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그 이유를 아이들이나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대안교육은 교사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을 방임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들은 여러 활동 중에서 기호와 능력에 맞는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우나 교사는 그것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학습 성과의 평가에도 아이들이 참여⁴⁸⁾한다.

(2) 개성과 개인차

교육에서 개성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동일 교과서로 동일 요령에 의해 가르치는 경우 처음부터 개성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소화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식사량을 강요하고 그 소화 량에 따라 능력을 판단한다. 아무 말 없이 무조건 많이 먹으면 우수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면 열등한 아이라고 한다. 교과학습량만으로 아이는 평가된다. 개성이 풍부한 아이는 당연히 열외가 된다. 그러나 대안교육의 내용은 개성과 개인차에 따라 당연히 다르다. 개인차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자기가 좋아하는 방(미술실이나 공작실)에만 몇 달을 다녀도 무방하다.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경쟁시켜서는 안 된다. 평가도 단계별평가가 아니라 개성을 존중하는 서술이어야 한다. 표준시험도 없다. 시험이 있어도 그것은 교사의 교육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우등생, 열등생은 없다. 대신 미술 또는 음악 등 무엇을 좋아

48) 중앙일보, "6대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효과", 2001.3.5일자 참조

하는 아이가 있다. 대안학교(자유 , 개방학교)에는 학년제, 학급제도 없다. 다른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배운다. 모든 아이들은 나름의 학습계획을 갖는다. 따라서 대안교육학교는 대부분 작은 학교이다.

(3) 교육과 생활의 통일

대안교육학교에는 교과서 대신 여러 교재가 사용된다. 서구에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일률적인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재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안학교에서는 더욱 무시된다. 있어도 교사가 스스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사용된다. 곧 교육이 책이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이나 직접체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리, 농사, 사육, 여행, 인쇄, 토목, 견학 등이 수업의 주 내용이다. 읽기나 산수 등의 기초학습도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실용, 직업, 육체교육의 중시 또는 정규수업 외의 휴식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다. 모든 학습이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에 의해 조직된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식의 과목분화가 아니라 하나의 활동 속에 그 모두가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이른바 "learning by doing(존 듀이)"이다. 그런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는 지역사회와 협조해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곳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배우게 된다. 지역에서 배우며 지역에 열린 학교이다. 대안학교에서는 놀이도 중시된다. 놀이를 통한 감정 해방은 자기주장과 협력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스스로 익히게 한다.

(4) 민주주의와 공동생활의 참가

대안학교의 교사는 권위를 갖지 않는다. 수업 등의 담당자나 공동생활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여도 그 위배를 이유로 징벌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름을 부른다. 학생은 집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토의한다. 교장도 1표, 학생도 1표를 행사한다. 부모도 참여한다. 부모나 주민을 위한 야간학교도 열린다. 교장이 있어도

교사와의 상하관계는 없다.⁴⁹⁾

49) 방영준,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서울: 이학사, 2006), pp.164-166.

Ⅲ. 구체적 실천사례

1. 발도르프 학교

1) 설립 배경

발도르프 학교는 일종의 종합학교로서 Steiner의 인지학에 기초하여 전인교육을 시키는 것을 교육의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다. Steiner는 교육을 문화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학교제도 개혁을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사회적 공학, 남녀공학, 8년에 걸친 담임 교사의 지속적인 기능, 에포크 수업, 성적 평가제도와 낙제제도의 폐지, 학교 생활에 통합된 실천적, 예술적 활동들, 교사협회에 의한 학교의 관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예술적인 학교 건축 등 일련의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여 실천하였다.

Steiner의 새로운 학교 교육의 실천은 그의 삼구조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Steiner는 독일과 세계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 질서 개념으로 사회적 유기체의 삼구조화 이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이제까지 강력하게 하나로 집중화된 국가조직을 해체하여 개인과 사회의 생활영역을 정신적, 문화적 생활영역, 경제적 생활영역, 법적, 정치적 생활영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즉 문화생활에서의 정신적 자유, 법적 국가생활에서의 민주적 평등, 경제생활에서의 사회적 박애를 그 기본 특징으로 삼고 있다.(정혜영, 1997:2).

Steiner는 서로 독립된 이 세 가지 생활 영역으로 분권화된 사회조직의 토대는 국가의 권력수단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공동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생활과 정신생활의 기능들이 국가의 직접적인 세력 범위로부터 벗어날 때 권력독점, 권력 집중화의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

고 보았다. 특히 하나의 새롭게 구조화된 사회 유기체 속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삶의 영역이 전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WjdgPdud, 1997:8). 따라서 Steiner의 삼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쓸모 있는 관리양성에만 힘쓰는 국가질서의 일부분일 필요가 없으며, 경제에 봉사하는 작업 기계를 산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발도르프학교의 탄생은 이러한 Steiner의 삼구조화 이념에 공감한 Stuttgart의 담배공장인 Waldorf-Astoria회사의 사장인 Emil Molt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Steiner의 사회 | 적 삼구조화 이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회사 이름을 따서 Waldorf라 명명하였다. 1919년 회사 직원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의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Steiner에게 학교 운영을 맡겼다. 이를 위해 Molt는 학교부지를 Stuttgart Uhlandshohe에다가 마련하고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다. 당시 학교의 규모는 8학급, 학생 256명, 교사 12명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1920년대 초 Waldorf-Astoria회사와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Steiner는 1925년 사망할 때까지 이 학교의 운영을 맡았으며 당시에 이미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는 나치 지배 하에서 발도르프학교는 폐쇄되거나 외부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하여 활동을 스스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1945년 이후 발도르프 학교 건립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1952년에 학교 수는 25개가 되었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이 1960년대 말경부터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1970년대에는 급증하였으며, 현재 발도르프 학교는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다. 독일에서만 17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유럽, 남미,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 걸쳐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학을 기초로 약 850여개의 학교, 1400여개의 자유 발도르프 유치원, 그 외 대학, 병원, 농장, 치유센터, 특수교육 시설 등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2) 교육목표 :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창설당시 창설자의 이상은 교육부문에서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사회적 출신, 능력, 미래의 직업과 무관하게 공동적 교육을 받아 자신의 자유 판단능력과 자신 삶의 이상과 시대 사회적 삶을 위한 자각심을 발달시키고자 했다.⁵⁰⁾루르루돌프 슈타이너 학교의 경우, 창설당시 함께 하였던 구성원의 직업을 잠시 살펴보면, 공장 경영자, 은행장, 체조 개인교사, 장학관, 직업학교 교장, 박사학위 소지자, 법률가, 가게종업원, 철학 기술자, 발전 소장, 경제학자, 상인, 교사 등 참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은 슈타이너 박사가 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던 인지학(人智學) 이라는 학문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수용할지의 여부를 두고, 이것은 어른을 위한 학문이며 교육은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구체적으로 투입시키지 않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교육의 목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었으며 여기서의 사람이란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⁵¹⁾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하며 쓸모 있다고 여겨온 인기직업을 갖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자신 속에 잠들어 있는 모습, 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모습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란 절대 하나일 수 없다.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개의 모습일 것이며,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개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깨워주기만 하면 되는 인간 자신 속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란 무엇일까? 성(Castle)'으로 비유된 예를 들자면,

인간이 저마다 갖고 있는 성(Castle) '을 이루면, 그 모든 성(Castle)' 은 하나의 목표지점에서 만난다. 배우려는 의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많고 다양하다는 것, 이를 통해 하나의 미성숙한 인간은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가

50) 허영록, “독일의 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개발』, 1997. 11월호 참조.

*허영록: 독일 자유 발도르프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세계 루돌프 슈타이너 교육예술협회의 한국대표위원이며, 강남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51) 요하넛 키어쉬 외, 『루르루돌프 슈타이너 학교』, (서울: 밝은누리, 1999), p. 21.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명예욕을 버리고 아이에게 사랑을 쏟으며, 아이가 지닌 천차만별의 능력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발견하며,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명예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부모가 한 상상이 아닌, 자기의 상상을 실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⁵²⁾

여기서 발도르프 학교의 인간에 대한 기본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 또한 평등하다 는 신념이다. 여기서의 평등 은 균등 이 아닌 질적인 내용이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이 누구 에게나 한가지씩은 있다는 신념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 을 인간 외부로 이끌어 내야하며, 자기 스스로와 사회를 위해 최대한 발휘하 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는다. 이 러한 교육적 책임을 충분히 다 하기 위해 모든 인간은 21세까지 학교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⁵³⁾

3) 교육방법

교육예술이란 표어에서 교육의 내용이 예술이라는 예술교육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두 개념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개념에 예술을 도입하게 된 철학은 다음과 같다. 색채, 빛, 음, 울림, 리듬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한 예술은 인간의 풍부한 감성계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전인적이고 복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교육하고 제대로 성장하도록 하는 길은 인간내부에 있는 복합적인 감성을 자극시키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예술적 심성을 일궈주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예술적 활동들은 자신과 사회를 위해 필요한 창조력, 체험력을 촉진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

52) 발도르프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업의 목적은 인간 내면의 자유 로 통일된다. 어른들의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명예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워서 의존 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이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53) 요하넣 키어쉬 외, 『루르루돌프 슈타이너 학교』 (서울: 밝은 누리, 1999), p.58.

라서 교육예술은 교육 활동이 예술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자의 교육활동은 예술가의 예술 활동처럼 여겨야 한다는 철학적 신념을 반영한다. 이에 발도르프 학교는 교육방법도 예술적 활동의 힘을 빌어 노래와 명상, 율동과 그림, 뜨개질과 흙 공작 등의 예술적 활동을 이용한 교육방법과, 예술교과의 교육으로 유명하다. 음악, 미술 등 예술과목 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물리 등 예술과 무관한 과목도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공작 활동 등을 곁들여 예술적으로 배운다.

알파벳 K' 를 깨칠 때는 K' 로 시작되는 단어인 왕(king)을 K자 모양의 그림으로 그리고 옛날 옛날에 어떤 왕이 살았는데 하며 옛날이야기를 한다. 라인강에 대해 배울 때는 발원지인 스위스 풍경을 그리고 그 지역 사투리로 된 시를 읽고 민요를 부르고 연극도 한다. 수학 시간에는 손뼉치고 게임하고 노래하며 수의 개념을 배운다. 아이들에게 5- 3=? 이라고 물으면 하품을 하지만 장미 5송이가 있었는데 밤새 도둑이 3 송이를 훔쳐갔다면 몇 송이가 남았지 라고 얘기를 꾸며 들려주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린다.⁵⁴⁾

수업내용과 수업형태의 결정은 아이들 배움의 과정과 유년기, 청소년기안의 인간발달의 단계에 그 중심이 있다.⁵⁵⁾ 배움의 과정이 유사한 각 발달단계는 7년을 주기로 변하며, 그에 따라 교육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로 설명할 수 있다.

54) 동아일보, “교육이 희망이다- 독일 발도르프 학교의 전인교육”, 2005년 5월 15일자 참조.

55) 허영록, “독일의 자유발도르프학교” 『교육개발』, 1997, 11월호 참조.

<표> 인간발달 7주기설과 교육방법

연령	발달단계	교육과업	교육방법	발도르프 교육기관
0~7세	생명체 탄생기	의지 발달 신체 발육	*모방 (혼합연령집단 조직)	발도르프유치원
~14세	감정체 탄생기	감정 성숙	*교사의 권위 (교사-학생의 신뢰형성)	발도르프학교 (1~12학년)
~21세	자아체 탄생기	지성, 사고 정신(영혼)의 발달	본격적인 학문의 시작 *자유를 누릴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성숙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그림 수업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그림이라는 형상화 작업을 통해 사물의 법칙과 본질을 순수한 그림들의 의미 안에서 이해하고 체험하여 배우도록 배려된다. 반복적인 이러한 학습과정은 학생의 정신적 과정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이 시기에 형성되는 영혼의 힘을 강하게 한다고 믿는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9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 판단력 형성을 위해 내면적인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는데,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여러 수업은 학문성을 강조하게 된다.

학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대학진학을 위한 돌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발도르프 학교가 주력하는 교육적 과제는 젊은 인간의 삶의 문제이며,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물음들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수업 방식이 에포크 수업이며, 이것은 집중식 수업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과목의 특성상 큰 덩어리로서의 단원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역사, 국어(독일어), 수학, 자연과학-, 또는 지속적인 연습이 요구되는 예술적 과목- 영어, 불어, 러시아어-에 대하여 이러한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덕적(윤리적), 종교적 형성을 위하여 종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 가지 종파만을 고집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종파의 대리자를 통해 각각의 종교 수업이 이

뤄지고 있으며, 초교과적 종교수업에 한해서 학교 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독일의 학교제도가 인간의 진로를 너무 일찍부터 결정짓는다는 일부의 반발에 귀를 기울여 하나의 대안적인 학교형태를 허락하게 되는데 바로 종합학교(Gesamtschule) 라는 것이다. 발도르프 학교는 이 종합학교 유형에 속한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며, 유급이 없고 대학 진학반 직업반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학습하는 공간이다. 보통 한 학년 당 1개 학급으로 편성되며 급당 인원은 30- 40명 선이다.이 학교의 창시자였던 인지학자 슈타이너는 인간은 신체를 소유한 물질적 존재이며 동시에 우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정신적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인간은 21세까지 7년을 주기로 발달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인간관과 그에 따른 교육관, 교육방법이 적용된 발도르프 학교의 학년구성과 자세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 발도르프 학교의 학년구성과 특색

우리나라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의무교육																					
獨 공교육학제	기초학교 (Grund-schule)						중등1단계						중등2단계									
							orientierung s stufe						주요학교 (Haupt-schule)						직업교육과정 직업학교			
													실과학교 (Realschule)(Realschule)(Real-schule)						전일제 직업학교 전문고등학교,			
													김나지움 (Gymnasium)						심화과정			
발도르프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정체 탄생기						자아체 탄생기															
특색①	←←←← 답입(8년 연입)=권위있는 어른→→→→											답입無: 과목별 교사										
특색②	언어, 예술, 수공업, 종교, 운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한 선생님이 지도한다.											▶주요과목: 국어,역사,사회학,예술사,수학 ,물리학,화학,생물학,지리학 에포크 3~4주 (오전) ▶예술교과: 공예,원예,그림조서,방적,직조 ,기술,기하학 ▶수공업 (에포크6~8주,주3회 2시간씩)										

4) 교육평가

1학년 학생의 가방 속에는 공책 한 권, 크레용 한 통이 전부다. 이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교사가 다년간 아이들을 관찰해 기록해 놓은 노트가 곧 교과서가 되며, 학생이 수업 중 집중하여 필기한 노트가 소중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집중수업기간 중에 한 주제에 대해 몇 달간 함께 공부하고 토론, 실습 등의 활동과정을 노트에 정리하여 제출하고 교사의 그에 대한 평가 문이 상술된 노트가 한 학년을 마치며, 과목 공부를 마치며,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면 상당수가 되며, 학생의 산 재산이자 12년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다. 고학년의 경우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며, 교사가 스스로 공부해 얻은 지식의 자유로운 구두적

표현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며, 종교교육, 체조, 연극, 율레 축제 등 특별활동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방침에 따르자면 교과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교사의 질문은 학생을 알기 전부터 계획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사는 아이들이 가진 힘과 소질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관례적 성적 평가는 없다. 성적표에는 학생의 성과와 성과의 진전 상황, 개별 과목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상세한 정보들이 서술되어있다. 또한 담임은 학년 말에 반 학생 개개인에게 각각의 성격적 특성을 표현한 금언증서 라는 것을 나눠준다.

5)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의 활성화

이 학교에 교장 이라는 직책은 따로 없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협의로 학교를 운영한다. 특히나 학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필요로 하는 안건들은 예산 책정, 기금 마련 및 학교 부지의 물색, 건물 매입과 건축, 정기 모임, 각종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참석, 입학 상담 등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루트는 무려 13가지나 된다. 학급학부모회의, 전체회의 행사,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면담의 날, 학부모 후원회, 바자회 준비모임, 각종 강좌, 시사회,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학교 연합회, 학부모-교사 연석회의, 학부모의 밤, 주말 모임이 그것이다. 각각의 성격과 1년 동안 개최되는 회수⁵⁶⁾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와 같다.

이 학교에 상급반 수학, 물리학, 종교과목 담당 교사로 근무하던 발터 못테라는 교사는 학부모 사업의 성공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먼저, 교사들의

56) 이 수치는 1958년에 설립된 루르루돌프 슈타이너 학교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며, 1975년경에 집계된 수치이므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가 부여되며, 어떤 모임이 다른 모임보다 모임의 빈도가 잦은지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 예로 든 루르루돌프 슈타이너 학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연합에 가입해 있는 학교이다. 참고로 당시 이 학교의 학급은 23개였으며, 학생은 모두 850명 정도였다.

철저한 사전 준비이다. 학부모 참여 행사를 앞두고 먼저 교사들끼리 몇 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가도록 한다. 이는 의견의 통일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의견과 여러 생각의 단편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의식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성공비결은 모임을 준비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일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케 하는 것이다. 기획위원회에서 큰 주제를 정한 후 학부모 후원회 등의 자리를 빌어 토론행사를 광고하고 설명하고, 학부모회의 후반에 대화의 시간을 갖은 결과 정해진 주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으며, 새로운 제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쉽게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한계선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존재를 보장하나 교육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교사에게 분명히 쥐어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교사와 함께 교육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은 교사진이 하되, 임명은 간부진(교사와 학부모 연합)이 맡는다는 규약에도 교사의 전문적 입장과 권한을 반영한 것이다.

<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모임의 이름	모임의 성격	빈도
학급 학부모 회의	특별한 경우 학생도 참여	학급별 평균 3회
전체 회의 행사	학급 경기, 표현 활동 공연, 음악회 등	약 37회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모두 초대, 교육 문제, 졸업의논	약 9회
학부모 면담의 날	학부모들이 한 명 이상의 선생님과 1:1대화를 위해 방문한다. 교사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 아무 거리낌없이 말하며 학생의 학업진전에 따라 보충 수업을 추천해 주기도 한다.	하루에 약 100회의 면담이 이뤄짐
학부모 후원회	학급별 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70명 정도의 학부모와 참석을 희망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다.	5회
소규모 학부모모임	바자회 준비 모임 등	
각종 강좌	예술 작업, 실제적 작업(예-장난감 만들기, 도자기 굽기, 악기 제작 등)에 학부모가 직접 도전하는 자리이며, 합창, 언어 표현, 표현활동, 교육 강좌, 문학 강좌 등을 연다.	매주 1회 모이는 강좌 7가지 정도
시사회	다음달의 행사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소규모 학부모 모임의 활동을 광고하는 보고서(광고와 본문으로 구성된 약 25page 분량)를 만들어 나눠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된다.	3~4회
교육 프로그램	①자녀의 학급소풍 참여(오리,진행) ②상급반 학생의 실습 지도 ③12학년 졸업식 참여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교 연합	모든 학부모가 회원이 되며, 간부진은 교사와 학부모가 동수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자는 매달 교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학부모-교사 연석회의	자유발도트르프 학교의 연간 총회시에 이뤄지며 5월 초에 개최되고, 상급반 학생들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다른 학교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을 열기도 한다.	1회 (950명 정도 참석)
학부모의 밤	특정 주제(교육 문제 관련)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는 모임이다. 예를 들면, 학급 여행의 의의와 목적, 조직, 재정, 수업내용, 발달실리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주말 모임	각종 강연, 예술공연, 회의를 함께 할 수 있다.	연 1회 100~150명

6) 발도르프 학교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카톨릭계 학교, 개신교계 학교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사립학교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학교에 많은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보겠다. 전체 학교 제도의 발전과 축진을 피하기 위한 사립학교로서의 법적인 근거⁵⁷⁾가 있으며, 1919년 창설 이후 다른 모든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할 때, 가장 독특한 학교교육 모델로 인정받고 있어 세간의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도르프 유치원, 발도르프 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교육 방법들은 그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공립학교 체제 내에 그 교육방법⁵⁸⁾들을 부분적으로 모방,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도르프 학교의 무엇을 인정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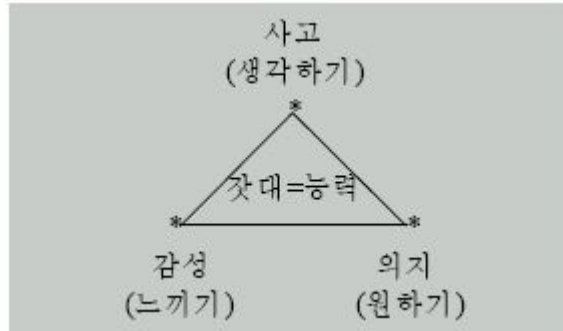
첫째, 이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아이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정당하고 적합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긍정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개성적 발전의 욕구와 사회적인 요구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이 학교의 교육을 통해 해소하며,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교육에 참여했던 졸업생과 학부모, 일반인들은 그 점을 인정한다. 각각의 인간은 모든 창조의 원천이며, 인간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각자의 척도, 잣대(세계관)가 필요하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이 척도를 오직 스스로, 혼자만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신념을 두고 모든 교육 활동을 이끌어 간다. 이 척도는 사고(생각하기), 감성(느끼기), 의지(원하기)를 평등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지식에 대한 암기와 학습은 의식적으로 미루고, 이 능력이 형성되도록

57) 발도르프 학교와 그 이외의 개혁학교의 선구자적인 업적이란 표현으로 독일 헌법 7조 4항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58) Project 수업(에포크 수업), 조기 외국어 교육, 점수 없는 성적평가 등(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록 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주력한다는 것이다.

<도표> 세계관(갯대=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삼차원적 균형요소



학급 안에서 학생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재능의 차이와 선호의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하여 배움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 배움은,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배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배움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 실제행동으로 실천하는 관대함,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협동심의 향상 등이며, 이러한 교육적 효과들은 발도르프 학교의 존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러한 교육적 방법을 계속 적용, 응용하는 시도와 노력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밀거나 이끌고 물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여 스스로 물가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연구하는 배우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러면 학생은 스스로의 이러한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인지, 그에 따른 수업구성이 바로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을 다른 교육과 구별하는 제일 큰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12년 간의 교육활동이 인간의 발달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 나이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결손 없이 채워주고 있는 노력과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요구, 도전, 의문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개성과 인성의 형성이 허용된 교육공간이라는 점이다.

셋째,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의 각종 국가시험 결과물들이다. 분명, 일반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학습내용과 방법에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것이라는 우리의 추측과는 달리, 국가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졸업하고 있다. 매년 국립 교육관청에서 나오는 고등과정 졸업시험, 대학 입학 자격시험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발도르프 학교가 원래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실현하면서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서 일반 공립학교의 결과와 비교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밖에, 일반 공립학교에서 발도르프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의 적응 기간이 발도르프 학교에서 일반 공립학교로 전학 간 학생과 비교할 때, 훨씬 오래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여러 보고물 에서 제시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속한 학생에게 부족, 결손 되거나 문제시 되고 있는 것-섬세한 동작 및 인지 능력의 감퇴, 폭력성, 가치 기준의 불확실, 약물 중독 등-의 해결책으로 실제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발도르프의 교육방식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발도르프 학교의 존재를 더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허영록은 이러한 발도르프 학교의 생명력을 두 가지로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자유, 자율, 자립, 독립정신과 둘째, 사상이나 세계상 또는 인간상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어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전 세계 713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하나의 정신, 자유, 아이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움을 깨우치도록 한다는 발도르프 학교 연대로 맺어져 있지만,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적응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면 쉽게 있다고 설명한다.⁵⁹⁾

59) 허영록, “독일의 자유 발도르프 학교”, 『교육개발』, 1997년 11월호 참조.

2. 풀무농업 고등학교

1) 설립배경

이찬갑과 주옥로가 학교설립을 결의하고 1958년 2월의 창립총회에서 발의한 풀무학원⁶⁰⁾ 발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계의 소망, 인류의 구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생명과 진리를 근본 정신으로 세계의 공민된 자질과 농촌의 수호자가 될 만한 식견과 기능을 습득하여 독립자활 할 수 있는 일군다운 인격과 실력을 길러낸다는 것은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긴중한 일이며, 경국의 백년대계 그리고 민족 만대의 불멸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정식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농민의 불우한 자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자 교육령에 의거한 풀무고등농민학교를 창립하고자 하여 기성회를 발기하오니, 이에 뜻을 품고 숙망 중에 계시던 면민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사람이 없으며, 이는 누군가는 해야 할 수고스러운 우리의 생애요, 가장 뜻 깊고 후세에 남길 유업으로 생각하시고 정성어린 협력과 자발적인 찬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삼가 이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성서생활, 68호, 1958년 3월)⁶¹⁾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불리며 훈련하는 인격도야와 평민교육을 위하여 양질의 쇠를 만들 듯 건전한 인간교육을 바탕으로 순수한 마음에 씨를 뿌리고자 염원한다(주옥로) 풀무라는 명칭은 원래 학교가 세워진 터가 예전 대장간자리였기에 풀무 꼴이라 불렀던 이유에서 유래되기도 했지만, 쇠를 달구어 내던 도구를 일컫는 풀무의 용도에서 녹슨 쇠와 무딘 날이 풀무 불 속에서 단단한 쇠, 호미나 낫등 쓸모 있는 연장이 되듯 학생들이 성실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60)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65번지.

61) 김조년(1997), 학교교육을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초연구, 충청문화연구:5집, p.44.

풀무학교는 농업기술고등학교이다. 풀무학교에게 농업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교육의 내용이되 교육의 목적이 아니다. 평민을 기르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이자 방법이다. 농업이 갖는 의미를 이 학교의 설립자가 가졌던 철학으로부터 찾아보겠다. 각자의 삶을 살던 이찬갑과 주옥로⁶²⁾가 만나게 된 것은 1953년 공주 집회에서였으며, 농촌희망론 에 대하여 논하며 서로의 농촌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알게 되고, 1954년 8월 안면도 무교회 성서모임에서 이찬갑이 농촌교육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게 된다. 1957년과 1958년 성서모임이 주옥로가 거처하는 풀무 골에서 열리면서 오랜 동안 농촌교육을 준비하며 흥동을 적지로 생각하고 있던 이찬갑이 주옥로에게 함께 학교를 만들자는 것을 권하고, 1958년2월 주옥로의 결단으로 흥동에서 만나 지방유지 8명과 함께 학교발기회로 모여 토론한 끝에 기성회를 발족하게 되고 20여 명이 총회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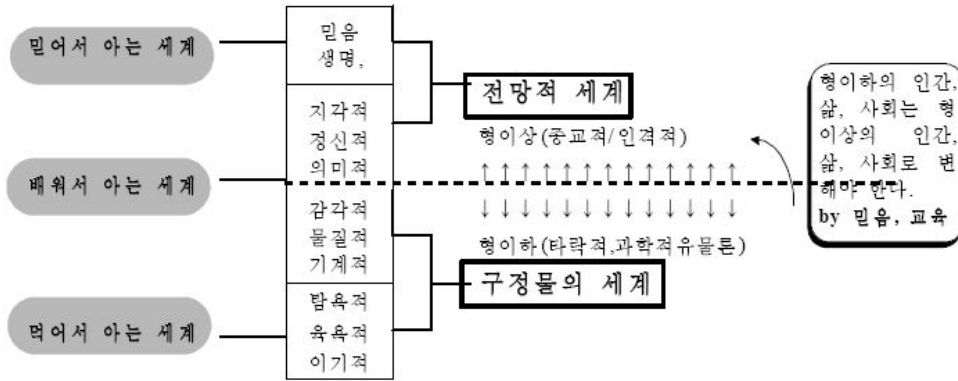
이것이 기성회 창립총회였으며 임원을 선출하였다. 주옥로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회사하여 학교를 세우고 1958년 4월 23일 학생18명(남 8명, 여 10명)과 교사 2명을 가지고 개교하기에 이른다. 이찬갑은 교육의 기초를 현실과 가정에 두고 몸과 주변 환경의 청결, 사물의 올바른 정돈과 동양의 예의와 정직에서 출발하여, 농촌과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민족과 애국을 강조하며, 엄정한규범과 규칙, 벌을 중시한다. 이와 조금은 다르게 주옥로는 교육의 목표를 성서에 두고, 성서에 의한 한국인, 진리에 의한 평민양성을 주장하며 성서와 더불어 살 것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성서를

62) ©이찬갑(1904.5.13~1974.6.16) 평북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남강 이승훈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오산소학교, 오산중을 중퇴하고 피어선고등성경학원에서 수학했다. 그가 영향을 받은 사상은 증조부인 남강 이승훈 선생과, 모교인 오산학교에서의 유명모선생의 민족의식과 덴마크 그룬트비의 국민교육, 무교회주의이다. 덴마크 그룬트비(Grundtvig)는 일하는 국민을 위한 생활학교 설립을 주장한 농민교육자이며 민족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연합을 피하였고, 라틴적이고 인문주의적 학교는 죽음의 교육이라고 말한 사람이다.

©주옥로(1919.12.24~). 충남 홍성군 흥동면 팔괘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서울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여 흥동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었으며, 『성서생활』이라는 신앙잡지를 발간하였던 무교회주의자였다.

기초로 한 삶을 강조한다. 이에 잘못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자애를 교육의 방법으로 여긴다. 두 사람의 교육 방법에서 대조적인 부분이 있으나, 결국에는 하나로 일치한다. 바로 기독교 정신이 철저한 한국의 농촌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일꾼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이 없이는 농촌이 꽃필 수 없으며 농촌이 없이는 교육이 싹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종교, 교육, 농촌은 하나 라는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일 이라고 이해한다. 사람다움이란 인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이끌어 내어, 선(善)을 사랑하고 악(惡)을 미워하는 건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바람직한 교사란 먼저 좋은 학생 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자세를 갖고 배우는 교사상이다.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소망을 주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며 협의하는 생활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진실한 믿음과 교육이상을 같이 하는 동지이어야 하며, 교육에 대하여 천부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스승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의 교사 소수와 이들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소수의 제자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인격적 접촉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교육 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갖고 있던 이찬갑은 한국의 농촌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성서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 했다. 한국의 농촌은 고난 받는 한국사회의 상징이었으며, 참된 새 인간은 영원한 새 나라를 가르치는 성서를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농민교육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왜 하필 농촌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이찬갑의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는 크게 형이상학적 세계와 형이하학적 세계로 나뉜다. 전자는 전망적세계이며 종교적, 인격적인 정신의 세계다. 후자는 구정물의 세계이며 물질의세계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하여 인간은 먹음으로(1차적), 배워서(2차적), 믿음으로(3차적) 이해하게 된다.

<도표> 이찬갑의 세계관



이제부터의 새 교육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촌교육으로, 민중교육으로, 정신교육으로, 실력교육으로, 인격교육으로 이 민족을 소생시켜 새로 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도시는 현대성을 대표하는 유물, 기계, 향락, 속박, 조작 등의 구정물 문화의 암흑세계이며, 반대로 농촌은 근본이자 정신이며, 생명이고 중심이며, 자연이며 해방이고 우주이며, 새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낙원이다. 왜 농촌이 낙원인가? 이는 뿌리는 대로 나고 땀 흘리는 대로 거두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은 도시를 바꾸는 기반이 되며, 전체로서의 사회에게 농촌이 없다면 뿌리 없는 사회와 같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아 도시가 확산되어도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생명세계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³⁾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하나, 우리의 농촌은 그렇지 못하다. 수난 받고 있는 한국을 상징한다. 이 때문에 교육은 농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없이 교육이 있을 수 없으며, 교육이 없이는 농촌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중세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원시 농촌을 정(正)으로, 중세 이후 도시의 발달이 사회의 발달을 주도한 모습을 반(反)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발견하게

63) 이찬갑, 『하늘과 막힌 현대』 (서울: 믿음의 새 생활, 1980), p.34.

될 새로운 세계를 합(合)으로 보는 시각을 찾은 것이다.

즉, 농촌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할 때, 한 걸음씩 새로운 사회로 가까워 질 것이라는 것이다. 농업은 생명줄이며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접합점이고, 환경과 국토보존의 기본이며, 생활과 문화의 근원이기에 농촌이 풍요로워야 다른 분야도 넉넉해진다는 것이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늘과의 관계가 없어 하늘의 빛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와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형이하학의 세계에서는 이기심, 욕욕, 탐욕, 기계와 물질의 팽배하게 된다. 이에 인간과 사회는 함께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형이상학의 세계로 변해가야 하며 그 방법으로 교육이라는 배움의 활동과 믿음을 제시한다. 우리의 문제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겨 절실히 회개하여야 하며, 새사람, 새 나라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믿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가진 모든 모습들을 다시 관찰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슬기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⁶⁴⁾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것, 참교육과 참 믿음을 기르고 실천할 마당으로 풀무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2) 교육목표 : 더불어 사는 평민

평민이란 옛 선비와 서민의 좋은 점을 결합한 개념이다. 즉, 선비의 치열한 학문정신, 예술 감각, 윤리질서에 대한 확신과 신념, 청빈함에 서민의 야성적 활력, 공동체성, 장인정신을 포괄한다. 평민의 특징은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간성을 갖는다. 신앙(덕)과 앎(지), 실천(체)을 골고루 겸비한 전인이며, 지역공동체 속에서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 사회 전체에

64) 홍순명은 현대 우리 교육이 잃어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 열 가지를 제시한다.

전통(우리 문화의 정체성 회복), 세계관(인생은 무언가 등에 대한 사색), 노동(전인적 구성체로서 참 지식, 성취감, 극복의지의 원천), 고향(교실을 떠나 지역사회의 모든 것이 가정), 작은 학교 규모, 독서(깊은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비판력신장), 공동생활의 경험, 대화, 신명(밝은 표정의 학생), 진리의 양면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홍순명, 『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8), p.42.참조.

이러한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다. 꾸밈과 거짓이 없는 순수인이며 평범한 사람이다. 전통이나 관습에 물들지 않았으며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남에게 겸손하며, 자기의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배우고 일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함을 바탕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등하다고 인정하며 존중한다. 이러한 평민은 사회의 기본 층을 이룬다. 소수의 권력인과 지식인에 보다 제대로 된 훌륭한 평민이 많아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이러한 평민의 보다 구체적인 상을 설명하기 위해, 풀무학교의 설립초기에는 위대한 평민⁶⁵⁾을 내세웠으나, 시대가 지나 지금은 더불어 사는 평민을 추구한다. 특히, 풀무학교의 교육대상은 농촌이며 농민이다. 현재의 피폐해진 농촌은 농업고유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농촌 특유의 공동체 성격을 상실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일수록 진정한 농민의 출현을 고대하게 된다. 그는 사람다운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이 뭉친 농촌이 필요하다. 농촌과 농업에 무관한사람들이 농업정책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농민이 일어서야 한다. 농부는 종교를 가져야 하며, 각각의 농부들은 생명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협업농업을 연구하고 경영하여야 한다. 진정한 농민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모습을 설명하는 주옥로의 글이 풀무학교에 있다.

농촌의 근대화란 농업과 공업을 병진하는 것으로, 농촌개발의 신용협동조합이 모체가 되어 죽음의 농법을 지양하고 생명의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무공해 유기농업의 적극적인 연구와 실험,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독이 없는 건강식품의 가공과 처리공장의 설치, 농촌자재와 식생활품의 공동구매와 공동출하판매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같걸이 할 것은 많으나, 같걸이 할 일군이 없습니다. 농촌의 문화시설도 전시적 새마을 운동과

65) 이 구호는 풀무학교 정원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다. 이는 주옥로 선생이 쓴 것으로 주옥로 선생과 이찬갑 선생이 옹호한 진정한 평민은, 자기의 가치를 자각하고 신앙, 교양, 자립능력을 갖춰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며 남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특히 위대함을 강조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 평민이 위대해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농촌 도서관, 유치원과 탁아소를 겸한 어린이 집, 농
한기 농민대학, 어머니 학교, 진리의 공동생산을 위한 농민 잡지 등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협업 농의 생산적실무자가 되기 위하여, 화
훼, 원예, 각종 농기구, 과수, 농산가공, 축산 등을 전공하고 생애에 걸쳐 연구
함으로 독립자활 할 수 있는 비범한 평민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풀무학교 복도에 걸려있는 수업생(졸업생) 이유진의 시 「함께」에는 풀무에
서의 더불어 사는 삶 이 표현되어 있다.⁶⁶⁾

간다 간다 배우러 간다

필기를 안해도 암기 안해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는 간다

어제는 무밭을 땀다 그래 한평생 흙과 함께 살아야지

오늘은 국화향 속에 있다. 은은히 퍼지는 국화향 속에

어느새 우리는 부자가 된다.

그래 맞다

거리의 누런 들판에서 부자는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편안한 저녁노을 향해

무거운 부자 되어 나는 간다간다

나누러 간다

66) 동아일보, “풀무학교를 찾아서”, 1998년 3월 9일자 참조.

이 시속에는 흙과 함께 하는 교육내용, 더불어 사는 것, 필기나 암기가 아닌 노동을 통한 삶과 연결된 교육이라는 풀무의 교육내용, 방법,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3) 교육방법

교육이란 무엇보다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잘 알 수 있을만한 작은 규모 속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전인격을 제 있을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상하의 군대식 관계가 아닌 진리 탐구의 동반자 관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격을 토막 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학습에서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거나 학생이 수동적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이나 생활, 노동과 배움, 이론과 실습은 나뉘지 말아야 하고 개인 능력을 존중하고 키우기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문학교에서는 인문과목만, 실업학교에서는 취직을 위한 과목만 가르치는 것은 학생 인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진학자나 직업인이기 전에 종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만 생각한다면 조금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보면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면서 생활했던 고교생활이 더 뜻 깊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골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왔지만 막상 내 아들을 농고에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다운사람으로 키워주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난생 처음 농사일을 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젠 농촌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거름냄새가 향긋하게 느껴진다고 할 때는 기특한 생각도 들구요⁶⁷⁾

67) 동아일보, “풀무학교”, 2003년 3월 9일자 참조.

이 인터뷰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2학년에 다니던 오태린 군의 어머니 전 풍자 씨가 답변한 기사내용이다. 아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한 풀무학교에 의 입학, 방학을 이용해 국내의 대안학교나 인성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학교를 아들과 함께 직접 방문해 실태를 알아보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전인이라 함은, 지(知)·덕(德)·체(體)를 모두 겸비한 사람을 말한다. 풀무학교에서 추구한 전인은 머리·가슴·손이 모두 발달한 사람이다. 머리는 학문을 통한 배움을 말하고, 가슴은 예배를 통한 신앙을 말하며, 손은 노작활동을 통한 생산을 말한다. 입시 편중의 교육을 배격하고 인문- 직업교육의 이원성을 극복하고자 한다.⁶⁸⁾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의지가 담겨있다. 즉, 풀무의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과와 자유교양, 실습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일반교과는 전체의 60%정도를, 자유교양 영역은 10%, 실습은 30%를 차지한다.

4) 교육평가

이 학교에서 관례적 성적 평가는 없다. 성적표에는 학생의 성과와 성과의 진전 상황, 개별 과목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상세한 정보들이 서술되어있다. 모든 영역의 성적은 서술형으로 진술되며, 교과 성적과 종합란은 해당 학생을 알고 가르친 교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종합의견란의 경우, 기숙사 사감, 담임교사의 해당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68) 앞의 기사: 풀무는 진로교육의 면에서도 유명하다. 1학년에 입학하면 성격, 직업, 적성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고, 3학년이 되면 보다 구체적인 진로상담을 한다. 이후에 졸업전에 진학이나 직업에 관련된 창업논문을 쓰며 창업논문발표회를 갖는다. 학생들이 쓴 창업논문은 국산밀을 원료로 하는 제빵, 제과기술, 한국 천문학의 역사와 고대인의 우주관, 백제사와 주변국과의 문화적 연관, 한국어의 어원과 변천, 자동차 주행 원리와 기본 정비기술, 개량한복의 의상디자인 등이다.(www.edufree.co.kr 대안교육현장- 중등을 위한 대안-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중시

이 새로운 학교는 우선 이 마을, 흥동의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느 권력자의 힘이나 원조물자의 덕으로 떠들고 야단하게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학교란 이 마을, 이 민족의 지체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이 가난한민족을 떠이고 더 일층 발전된 일군을 기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립당시부터 두 설립자 이찬갑, 주옥로는 학교(교육), 농촌(사회), 신앙(종교)는 하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학교는 지역의 일부로 그 역할을 다하며 지역과 학교의 담을 낮추는 일에 앞장섰다. 성서를 기초로 한 무교회 신앙과 민중의 삶의 터전인 흥동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풀무학교의 교육은 신앙 이라는 도구로 흥동지역의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조선시대를 비롯한 근현대사 속에서의 흥성(옛 이름:홍주목)은 경기도 평택이남에서 충남 서천까지 22개 군을 관할하던 충청도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법원, 검찰청, 교도소, 세무서 등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의 흥성군은 충남의 15개 시, 군 중 재정 자립도가 중하위권에 속하는 인구 9만 5천명의 중소도시로, 전국 제1의 축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농현상이 심각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여준다. 흥성군 전체로도 인구가 줄고 있을 뿐 아니라, 2개 읍 9개면으로 이루어진 흥성 내에서도 면에서 읍 단위로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거의 유일한 지역은 흥성읍이다. 또 하나의 읍 단위 도시, 광천읍이 인구 2만이 채 안되어 행정구역상 읍이 존폐위기에 처한 데 비해, 현재 흥성군의 중심지인 흥성읍의 인구는 4만을 육박하고 있다. 흥성읍의 초, 중, 고 각 3개교는 흥성군에서 가장 큰 학교들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⁶⁹⁾이런 상황에서 풀무가 흥성에서 보여준 가능성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69) 이문영, “충남 흥성, 지역 학교의 가능성을 묻는다,” 『우리교육』, 2000년 5월호 참조.

지역의 학교 화와 학교의 지역화라는 교육목표가 보여주듯 풀무가 설립당 시부터 지역에 뿌리내리는 학교를 지향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풀무학교의 지역운동의 특징은, 초기 단계에서는 학교가 참여해 주로 학교 부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자립단계가 되면 지역민 스스로 운영, 완전 토착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민에 의한 운영방식은 주로 협동조합의 형태이며, 학교가 강조하듯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현재, 대학을 졸업한 외지의 여성들이 이 지역 남성들과 결혼해 홍성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가정도 여럿이며, 젊은 남성귀농인 역시 풀무학교가 있는 홍동면으로 들어와 정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당리 인데, 유기농을 해오던 풀무 고등부 14회 졸업생 주형로씨의 주도로 1994년부터 오리농법을 이용한 유기농업이 마을 운동으로 확산, 현재는 환경농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녹색연합,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함께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이 마을에 오리를 공급하는 일을 풀무학교의 축산부에서 맡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상지였던 풀무학교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그 결실이 다시 학교로 되돌려지고 있다. 지역과 학교의 접촉점은 학교부지 내에 있는 지역교육관이다. 학교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을 사랑해서 지역을 가꾸는 사람을 기르며, 지역은 주민의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교사의 사택과 홍성정농회 사무실로 쓰였으며, 독서실도 있다.

지역의 교육력을 최대 활용하고, 학교를 움직이는 원리가 지역사회를 움직일 때, 지역과 학교는 힘이 실리며, 그렇지 못하면 학교만 이불 속엿 활갯짓하는 꼴이 됩니다. 지역과 학교가 하나로 움직이는 원리, 이것이 일리히(Ivan Illich)가 말한 상호친화적 사회, 곧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지역의 자치와 생명, 협동적 공동체에 공감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⁷⁰⁾

70) 동아일보, “풀무학교”, 2003년 3월 9일자 기사 참조.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환경이나 자연을 활용하며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또한 미래 시민의 주생활무대는 지역과 세계가 될 것이므로 국제이해를 위한 학습과 교류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내의 평화는 물론, 학교의 운영자체가 민주화되어 무두무미의 원칙으로 교사회, 학생회, 이사회, 학부모회가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보완하며 학교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학교가 있는 지역일대에 어떤 문화, 역사, 사회 조건이 있으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꾸리며,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과 핵심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을 위한, 지역이 할 일을 학교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다. 이미 마련된 주변의 사회를 그대로 교재로 여겨 생활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어떤 훈련장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을 바꾸며 자신과 사회를 동화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 것이다. 이런 의지를 실천하여 얻어진 풀무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소개하면 <표>와 같다. 풀무생활협동조합, 풀무신용협동조합, 주간 홍성, 잣골 어린이집, 시골문화사, 바른 식품, 유기농업, 재생비누협동조합, 흥동한우, 정농회 홍성지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풀무학교의 성과는 학교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수업생이 시작한 것도 있지만, 모두 흥동 주민들의 협조와 협동으로 가능했다. 함께 하되, 동화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며, 단편과 부분이 아니라 종합을 시도하고, 구체보다는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운동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역사회는 세계화로의 기초단위이다. 풀무학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지역사회 안에서만의 폐쇄주의가 아니다.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단계이다. 이에 외국어 학습과 국제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을 아주오래전부터 시작해왔다. 문통(편지주고 받기), 방문, 학생 교류, 공동수업 등을 실시하는데 이는 단순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발전하여 주체적이고 보편적인 사상에 서서 우리 문화와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유능한 미래시민을 기르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표> 풀무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한 결과물

종 류	역 할
풀무생활협동조합	도매상점이 없던 홍동에, 학생들이 홍성까지 다니며 물품을 구입해 소비조합의 형태로 마련하였다. 학교에서 시작하였으나, 홍동면 소개지에 자리하고 있다. 유기농업 생산자회를 결성하여 도시의 20여 소비자 단체에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풀무신용협동조합	5000원으로 시작한 신용조합으로 전국에서 초기에 해당한다. 돈을 맡기고 빌리는 것 외에, 조합원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훈련하며, 사료취급, 중돈장 시설을 만들어 양돈대학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주간홍성	풀무의 수업생 이병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국 지역신문의 시작이고, 한 때는 불법발행이라 하여 발행이 금지된 경우도 있었다. 독자 주주제를 도입하여 홍성읍에서 독립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갯골 어린이집	1980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업서를 통해 모금하며, 풀무학교 부지에 주민과 교사들이 작업하여 지은 건물에서 독일의 유아교육방식(상황교육)을 배워 실시한다. 현재 관청의 지원이 있어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시골문화사	1981년 설립허가를 받아 문집, 교양국어, 오리농사, 농업에 대한 사랑 등 매년 몇 권의 책을 내고 있다. 도서조합으로 시작되어 마을 도서관과 도서판매를 중합하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른식품	풀무의 교사가 국산 콩만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자연식품을 만들고, 공장을 세워 쌀장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쌀장 판매 전략이 성공해 정상운영이 가능해졌다.
유기농업	풀무학원 졸업생이 시작한 사업으로 오리 벼농사를 통해 '홍주골 오리쌀'을 생산하고, 홍동에 오리벼농사 시범지역을 지정받았으며, 우리 밀가루 계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생비누협동조합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목 실습도 하며 지역 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1994년에 설립하였다. 홍성군청의 협조가 있어 폐식용유의 수집이 보다 수월해 졌다.
홍동한우	풀무수업생이 영농법인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배합한 사료를 중심으로 사육하여 부위별로 지역과 서울에 판매점을 두고 있다.
정농회 홍성지부	1975년 일본 애농회 고다니 준이찌 회장이 풀무학교를 다녀가는 것을 계기로 한국 유기농업이 도입되었고, 한국 정농회가 결성된다. 그후 홍성에 지부가 생겼으며, 유기농업생산자회와 함께 벼농사, 채소, 원예, 과수, 축산 가공 등 유기농 생산품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구회	지역의 젊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결성된 것으로, 더불어 사는 자치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계획, 기관들과의 협조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홍동지역의 역사유적, 의미 있는 곳을 발굴하여 연구, 보존하는 일을 한다.
수업생 연수, 풀무성서집회	무교회의 전통에 따라, 여름, 겨울에 걸쳐 두 번씩 하는 모임이다. 수업생과 학원의 연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동시에 수업생에 대한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성서집회는 그들의 창업과 사업에 성서의 정신이 배도록 하는중교교육이다.
자매결연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 교류의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로 일본과 결연하며, 국내 거창고, 서울의 경의여자고등학교와 결연을 맺고 있다.

6) 풀무학교에 대한 평가

한때, 흥동 중학에서 2명의 학생만이 풀무학교에 지원한 때가 있었으나, 약 40여년이 역사를 갖게 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풀무학교가 흥성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면서 1996학년도 신입생은 정원의 2배가 넘는 지원자 중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며, 1997학년도 신입생은 3배가 넘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였다. 지원자는 전국에 퍼져있다. 이 때문에 합격자 선발에 성적이 60% 반영되었으며, 현재 시골출신, 농촌 출신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풀무학교와 지역과의 긴밀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교육에 대한 위기론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교육을 찾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풀무학교로 몰리면서 그 결과 2005학년도 입학생 27명 중 6명, 전교생 79명중 19명만이 흥성출신 학생이 되었다. 이것마저도 지역 학생을 학년 당 최소 5명씩 확보하기 위해 특별전형이라는 공여지책(이문영)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풀무가 지향하는 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풀무 입학이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며, 풀무의 모든 가치가 대학입시 뒤로 떠밀려 버리는 사회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인 홍순명씨는 이점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한다. 우리도 경계하고 우려하는 바다. 우리의 이상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교 정원의 100%가 되는 것이다. 도시 학생들만 오게 되면 귀족학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도시의 개성 강하고 발표력도 좋은 아이들이 지역의 순박한 아이들과 섞이니까 조화가 되고, 더불어가 된다. 이제는 조금씩 지역에서 아이들이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다. 졸업생 자녀들과 귀농가정의 아이들이 점차 입학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학생들을 통한 지역과의 유대형성이라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유관기관을 통한 지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⁷¹⁾ 가난한 농촌출신, 불쌍한 농민들의 자녀들을 끌어 모아 사람다운 교육을 하겠다던 원래의 교육 방침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의 보도와 많은 사람의 관심은 위와 같은 폭

71) 이문영, “충남 흥성, 지역 학교의 가능성을 묻는다,” 『우리교육』, 2000년 5월호 참조.

발 지원을 가져와 신입생을 선발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받게 되면서부터 풀무의 교육과는 동떨어진 진학 의 열병으로 그 정체성을 혼드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교육은 일반화되어 있고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형편이 가능하면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경향이 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학생과 학부모가 강력히 원할 때 과연 풀무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학교 측은 얼마나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얼마나 거역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3. 간디 학교

1) 설립배경

학교 설립자인 양희규 박사는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간디학교의 설립취지이자 교육철학이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마다 행복의 개념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에는 필수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건강, 사랑, 지혜 등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과 활동은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⁷²⁾ 교장 양희규 박사가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필수조건-건강, 사랑, 지혜-를 위해 간디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 간디학교에서는 균형 있는 식사와 30분 도보를 통한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식당에서 잡곡으로 이뤄진 주식과 풍성한 야채, 단백질로 이뤄진 부식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며, 기숙사에서 학교 캠퍼스까지의 거리를 1.2km 떨어지게 배치해 하루에 2.4km씩 걷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인 사랑 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며 오랜 세월동안 적절한 교육과 노력

72) 양희규,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내가 간디학교를 세운 이유”, 『샘터』, 1999년 3월호 참조.

이 없이는 습득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은 사랑의 기술을 습득할 현장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간디 학교는 철학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과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공동체 생활과 다양한 협동 작업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생활습관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한 방을 쓴다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고통이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세 번째 조건인 지혜, 이것은 배움의 기쁨이다. 이에 대하여 그가 설명한 글을 인용해보고자 한다. 지혜의 종류는 다양하다. 집을 짓거나 옷을 만드는 등 생산과 관련된 지혜,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판단을 잘하는 지혜, 학문이나 이론적 지식과 관련된 지혜, 아름다움이나 감성과 관련된 지혜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에 이르는 길은 마치 여행과 같아서 일정한 공식이 없다는 것이다. 여행이 즐거웠냐고 묻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배움에 기쁨이 있는가? 이다.⁷³⁾

그러나 오늘의 학교교육이 배움에 있어 기쁨을 터득하기보다 염증을 갖게 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교육원칙을 실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 양희규 박사는 교육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랑과 자발성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의 원칙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칙이며, 자발성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배움에 대하여 취해야 할 관점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는 상하의 위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 신뢰, 축복, 서로를 위한 기도와 노력이 상호간에 교류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다. 또한, 배움이라는 작업이 가치로워 지려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발성의 원칙이다. 여기에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원칙이 상호 의존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조건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73) 양희규,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내가 간디학교를 세운 이유”, 『샘터』, 1999년 3월호 참조.

의 원리이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끈끈한 정과 사랑을 낳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모나고 미운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이에 양희규 박사는 위의 세 가지 원칙, 사랑, 자발성, 공동체의 원칙을 기반으로 네 가지 특성을 담은 새로운 학교인 간디학교를 구상하게 된다.

이 학교의 첫 번째 특징은 규모가 작은 학교이다. 정교사 몇 명과 외부 강사 약간 명, 몇 십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긴밀한 유대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위인 간디의 불복종 정신을 닮아 어떠한 세력에도 굳건하게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교육목적을 세웠다. 세 번째 특징은 독립적이고 자족적 인간이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쓸모 있는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공교육이 미리 주어진 목표를 향해 교사와 학생이 매진하도록 훈련함을 비판하고, 자아의 진지한 표현을 도와 개성을 활짝 피게 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 탁월성을 기대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식을 계속적으로 구상해 나가는 진정한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처음 입학하면 한 학기 내지 일 년 정도는 실컷 논다. 이 기간은 제도권 학교에서 공부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기간이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학생일수록 노는 기간은 길어진다. 그 기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적이 뛰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생을 긍정하고 열의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를 더 바란다. 간디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열의를 갖게 된다. 옷 만들기, 영화 만들기, 연극, 기악, 집짓기, 봉사, 여행 등 학생들의 열정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공부에 몰두하게도 만든다. 진로를 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면 목표에 따라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2) 간디 학교의 교육목표 : “오래된 교육의 새 꿈”

간디학교는 과연 어떤 인간을 길러내자는 것인가? 즉,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일반 학교에서도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교육목표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적인 인간”이란 말은 명목상으로는 공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대안’이라고 말하는가?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늘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일상생활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존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황금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가장 큰 맹점은 불일치의 부분이다. 교육철학의 부재와 더불어 이념과 실천의 불일치이다. 즉 교육철학의 부재와 명시적인 이념과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교육과의 괴리이다. 교육이념의 제시로서 이념의 역할이 끝난다면 교육의 이념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도 그 이념 자체의 추상성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분석하면, 인본주의와 이타주의 정신이 핵심이다. 또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하여 설정된 인간상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러한 이념들이 현장의 실천 원리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한갓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문제이다(황금섭, 2001: 128).

아무리 좋은 이념과 교육목표가 있어도 그것이 “현장의 실천 원리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한갓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안교육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현실 세계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잘 다듬어진 세련된 “구호”나 걸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말보다는 오직 투박하고 어수룩한 “실천”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디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목표로 어떤 교육활동을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간디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씩 따져서 검토해보자. 먼저 그들은 “전인적인 인간”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인 인간이란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 정서, 인격에 있어서의 최선의 자아실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정·의가 조화로운 인간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수업

▶ 정서교육 강화

▶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과 개별화 학습

간디학교 교육목표는 한 마디로 “탁월한 인간”을 길러내자는 데 있다. 즉 학생 개개인이 “지·정·의”가 조화로운 상태에서 “최선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이동수업”, “정서교육”, “개별화 학습”에 중점을 두어 실천하겠다고 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공동체적인 인간

공동체적 인간이란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책임성”을 갖는 인간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다른 개인들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고 그것에 따

라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노력할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역사와 사회 속에서 책임성 있는 인간

▶식구 총회 활성화

▶기숙사 생활

▶학생회 자치 활동 지원

▶학생이 조직하는 동아리 활동

간디학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인간이란 “역사와 사회 속에서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는 구체적인 가치지향점이 있는 듯 하다. 목표가 구체적이면 실천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식구 총회, 기숙사 생활, 학생회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3) 교육방법

간디학교의 교육활동은 크게 교과활동, 이동수업, 특별활동, 가정학습 활동, 방학, 기숙사 생활의 6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교과활동은 다시 지식 교과, 감성교과, 노작교과로,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학교행사활동,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 봉사활동으로 분류된다.

<표> 간디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1) 교과 활동	필수 교과 (30%)	지식 교과	언어(국어, 외국어), 역사, 지리, 자연과학, 수학 등	탐구식, 단계별, 개별화 학습
	특성화 교과 (70%)	감성 교과	음악, 미술, 합창, 연극, 무용, 시쓰기, 자연탐사 (인간과 자연에 관한 감수성 발달 유발)	
		노작 교과	의식주 해결(알고있는 지식의 습득, 독립적 주체적 인격체로 성장)	
2) 이동수업			연3회, 학년별로 일정을 계획하여 실시하며 3박 4일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리상 중주를 매년 1회씩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그밖에 연극관람 및 연극배우 만나기, 대학 및 방송국 견학, 생태 조사, 봉사활동, 체육대회, 해외 연수 등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3) 특별활동	학급활동			
	학교활동		각종 행사, 식구총회	
	동아리활동		관심 분야별로 3인 이상이 모여 개설 신청할 수 있다. 일반학교의 클럽활동과 같은 개념이나 보다 학생의 역할이 강조된 자치적 기구이며, 교육과정 편성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학생이 자치적으로 계획, 운영하고 활동하며 담당교사가 배정되거나 교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에는 매우 소 극적이다.	
	단체활동			
	봉사활동			
4) 가정학습			40일에 한번씩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정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특성화교과의 결과물 예를 들어 옷가지, 생활용품 등을 가져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거나 가족과의 좋은 시간, 숙제해결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 방학활동			봄방학을 겨울방학에 포함하여 2월 마지막 주에는 수업을 실시하고 신학기 준비를 하게 된다.	
6) 기숙사 생활			여학생 기숙사와 남학생 기숙사를 따로 두고 있으며, 기숙사의 청 결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관리는 사감이 아닌 학생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 해결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일반학교의 클럽활동 과 같은 개념의 활동이나, 그것과는 매
우 다른 차원에서 운영된다. 일반학교의 매우 형식적인, 주당 2시간 정도의 형
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중 내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열의를 다하여 참여하며, 학교 내에 몇 개의 동아리가
창설되어 있는지 교사들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많은 동아리

들이 있다. 한 학생이 서너 가지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일단 3명 이상의 학생들이 같은 취미와 취지를 가지고 모이게 되면, 동아리 창설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창설된 동아리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해당 동아리를 담당할 교사를 배정하게 되나, 그 교사가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도할 의무는 없다. 어디까지나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끼리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사랑 이라는 동아리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데, 담당교사와 동아리 학생들의 역사관련 동아리활동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특이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주변 산청지역의 문화 전반을 답사하거나, 4.19 마라톤대회, 5.18 문예대전 등의 행사를 계획하여 참여한다. 연간 수업일수가 일반학교의 경우 22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간디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연간 200일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더 많은 체험학습의 기회와 가정학습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정학습은 40일에 한번 씩 부여되는 가정방문기간으로 약 4박 5일간의 휴가와 같은 기간이 주어진다. 이때 학생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다. 특이하게 이 학교는 봄방학이라는 학년말 휴가를 겨울방학에 포함시키고 일반학교의 학년말 휴가가 시작되는 즈음에 개학을 하여 졸업식 및 새 학년을 준비하며 남은 기간을 보낸다. 이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일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3년 동안 204단위의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중 약 70단위(약 30%)는 필수교과에 의해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필수교과라 함은 다른 일반학교에서도 다루지고 있는 지식교과(언어, 역사, 지리, 과학, 수학 등)를 말하며, 특성화교과는 감성교육, 노동중심의 의식주해결 교육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약 70%)

<표> 2005학년도 학사일정 (간디학교)

	기간	주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수업	출석	
2	2.18~2.24								졸업식	0	0	
3	2.25~3.3	1							입학식	1	1	
	3.4~3.10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6	6
	3.11~3.17	3									6	6
	3.18~3.24	4		건강검진	체질검사					6	6	
	3.25~3.31	5					심리적성	학생회선거	가정학습	6	6	
4	4.1~4.7	6	가정학습(5박6일)				입교			5	2	
	4.8~4.14	7							6	6		
	4.15~4.21	8							6	6		
	4.22~4.28	9							6	6		
5	4.29~5.5	10						체육제		4	4	
	5.6~5.12	11								6	6	
	5.13~5.19	12	방문의날							6	6	
	5.20~5.26	13								6	6	
	5.27~6.2	14					지리산종주(3박4일)			6	6	
6	6.3~6.9	15	가정학습(2박3일)			입교				5	3	
	6.10~6.16	16								6	6	
	6.17~6.23	17								6	6	
	6.24~6.30	18		단오제						6	6	
7	7.1~7.7	19								6	6	
	7.8~7.14	20					기말발표 및 숙제	종업식		6	6	
	7.15~8.25		여름방학(42일간)									
9	8.26~9.1	1	입교	개학						6	6	
	9.2~9.8	2								6	6	
	9.9~9.15	3								6	6	
	9.16~9.22	4								6	6	
	9.23~9.29	5	방문의날				체력장	가정학습		6	4	
10	9.30~10.6	6	가정학습(추석:5박6일)			입교				5	3	
	10.7~10.13	7	유네스코농촌체험(4박5일)			간담일			간담축전	6	6	
	10.14~10.20	8								6	6	
	10.21~10.27	9								6	6	
11	10.28~11.3	10	가정학습(3박4일)								6	3
	11.4~11.10	11	입교							6	6	
	11.11~11.17	12								6	6	
	11.18~11.24	13								6	6	
	11.25~12.1	14								6	6	
12, 2	12.2~12.8	15								6	6	
	12.9~12.15	16						기말발표 및 숙제		6	6	
2	12.16~2.16	17	종업식	겨울방학(62일간)								
	2.17~2.23	18	입교	개학					졸업식	6	6	
	2.24~2.31	19								6	6	
										218	208	

감성교육은 합창, 연극, 시 짓기 등의 예술 활동을 일컬으며, 의식주 해결 교육은 요리, 옷 만들기, 집짓기, 텃밭 가꾸기 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규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실습, 공업실습보다 더 자주, 더 큰 비중을 두어 실시하며, 절대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수업 중 학생은 주도자가 되며 교사는 참여자가 되어 학생이 스스로 연구하며 글로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교사는 필요한 부분에서 조언을 곁들인다. 수업에 대하여 교사의 주도권과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교과담당 교사는 단원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나 사회교과의 경우 프로젝트 수업 또는 토의 학습을 계획하여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동안 같은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생과의 면담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고 거론되었던 역사교과의 학습에 대하여 그 수업을 진행하였던 최보경 교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 하였다.

할 놀이 등을 통한 선거 학습을 실시하였고, 정리 활동으로 실제 4.13 총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급의 학생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 한나라당, 민주당, 재야당을 선택하게 하여 각 당의 당원이 되게 한 후, 당의 공약 사항, 한 달의 유세, 선거 운동, 토론회, 투표 등 선거 일체의 과정을 실제와 똑같이 실시하는 수업이었지요. (최보경 역사담당-간디학교 방문 인터뷰 中) 간디청소년 학교의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표현·예술수업과 제인 뮤직비디오제작-조별로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제출하기 을 위해 진주시내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이 없어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집중하여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일반 학교에서는 도전하기 힘든 다양한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흥미로운 과제활동을 통해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74)

영어 수업의 경우, 팝송을 따라 부르며 표현을 배우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

74) KBS 취재파일 4321, 2003년 10월 16일 방영분 내레이션.

여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며,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구분이 없이 수준에 따라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되어 있다. 수준은 3단계로 나누어 개설되어 있다. 국어 수업의 경우, 만화-신문 연재만화, 광수생각-속 대사 완성하기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며 교과서는 거의 없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공부하는 재미를 높이는 것은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학습의 재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표현·예술수업의 한 경우를 들자면, 음악을 들으며 생각나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있었다. 그 활동은 왜 그렇게 그렸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주1회 하루 종일 운영되는 자립 기초시간의 예로 학교교실 건물에서부터 기숙사까지의 지름길 내기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필요한 과제를 두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노동에 임한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강한 개척 정신을 배우고 공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교사와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밭농사, 길 만들기, 논농사 등의 실제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자립기초교과 의 활동은 인간이 자립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산을 갖게 하며 큰 나무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느끼며 그 힘을 깨닫게 된다. 힘들게 일해야 하고, 공부도 혼자 해야 하고, 과외나 보충수업도 없고 낮은 공부 방식, 대학 수능도 혼자 준비해야 한다.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사회진출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학진학만이 최고로 평가받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학교의 교육방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⁷⁵⁾

이 학교에 다니며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한 학생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 자율적인 것” 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은 사랑과 자발성으로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을 중시

75) EBS 현장르포 제3지대 “남천동 3인방이 산으로 간 까닭은”, 2001년 11월 16일 방영분 내레이션.

한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규칙들이 학생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모습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쪽으로 가서 결국은 다 같이 놀아버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도 1년쯤 지나면 다 잘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내가 보기엔 이 모든 것이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회인이 되기 위한 과정 이라고 생각한다. 입학 초 잠시 동안의 혼란을 통해 자율과 방종,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배울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 받으면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또 남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간디에서 배운 중요한 것들 중의 두 가지이다.” (간디학교 제1회 졸업생 김한성)4)

4) 교육평가

평가의 영역은 교과 발달영역, 출결상황, 행동발달, 특별활동영역, 봉사영역이라는 일반 정규학교와 같은 영역에 정서 및 인간관계 의 평가를 첨가한다. 이 영역은 담임교사, 동아리 교사, 기숙사 사감 등 해당 학생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견해를 종합하여 진술하고 있다. 간디 학교의 학생 통지표의 영역은 교과활동 영역, 특성화 교과 영역, 종합 란으로 나뉜다. 모든 영역의 성적은 서술형으로 진술되며, 삶과 철학, 합창, 합주, 진로 탐색, 간디문화, 자립 기초교과(옷 만들기 등)의 특성화 교과의 성적과 종합란은 해당 학생을 알고 가르친 교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종합의견란의 경우, 기숙사 사감, 담임, 동아리 교사의 해당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5) 환경보호체험 학습 중점

환경보호는 생활공간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간디학교의 환경보호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몸 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의, 식, 주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생태생활공간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간디학교의 지리적 여건은 산골의 지형적인 기반위에 동식물을 그래도 접함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공원 조성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노작 체험 등을 통해 생태 덕성을 함양해 간다. 또한 교실 건물도 자연 친화적인 흙이나 돌을 재료로 하여 모양을 달리 하고 있어 획일성을 탈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디학교의 생태공간은 기존 학교의 캠페인 위주의 환경 보호 교육을 극복하여 생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실 공간을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의, 식, 주 교육도 자연과 함께 하고 동화될 수 있는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신이 입을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음으로써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고 무공해 재료로 음식과 빵을 만들어 먹으로 건강의소중함을 깨우치며 집짓기의 전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지혜를 터득한다. 이와 같은 간디학교의 의, 식, 주 교육은 기존학교의 교실공간에서 교과를 통해 배우는 이론적 지식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땀을 흘리며 환경을 보존하는 자립기반을 다지고 있다.

6) 간디 학교에 대한 평가

간디학교의 탄생은 한국사회의 교육적 상황을 ‘구조악’으로 인식하는데서 부터 출발한다. 설립자 양희규는 한국 교육의 구조악을 ‘입시위주’ 교육에서 파생된 ‘일류병’, ‘학력주의’, ‘학연주의’ 등과 ‘상업주의’가 교묘하게 결합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 구조악은 우선 개인적 대부분의 사람들을 ‘들러리 인생’으로 살게 만들고, 나아가 ‘열등의식’과 ‘허영’에 젖어들게 하여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황폐화시키고 마침내는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

간디학교는 바로 이러한 ‘구조악’에 대한 도전으로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과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간디학교의 탄생은 우리교육의 현실에

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 교육개발원의 이종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간디청소년학교의 개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우선 그것은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실험의 시작이었다. 이 학교는 명실상부한 전일제 학교로서 기존 제도교육의 보완이 아니라 대체였던 것이다. 둘째, 이 학교의 개교 자체가 향후 대안 학교의 설립 가능성을 웅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27명의 학생들은 대개가 다 일반 학교에서 세칭 모범생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그들과 그 부모들은 다니던 학교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학력인정은 물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기대할 수 없는 학교를 선택했다. 이 사실은 곧 졸업장의 위력이 절대적인 우리사회에서도 기존의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학교를 박차고 나올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이종태, 2001b:21-22).

요컨대, 간디학교는 처음부터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교육의 보완이 아니라 대체”로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학교모델을 창조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간디학교의 교육활동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교육의 ‘새로운 희망 찾기’로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안학교의 문제점

초기 각종 언론과 대중매체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면, 성공적인 사례, 자유로운 학생들의 생활 등 좋은 면을 부각시켰지만 이것이 대안학교의 현실을 모두 말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적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교육제도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제반 여건 및 시설의 정립이 필요하다. 각 대안학교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력=학력’이 현존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 능력의 징표로까지 여겨지고, 실제로 학력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한다. 학교 졸업장의 사회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능력징표(졸업장)을 제공하는 각급 학교로의 진입을 열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사적으로 교육동기 강화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특정 학벌 형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집착 심리의 정도는 강할 수밖에 없다.

대안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부적응 학생이나 중도 탈락자를 위한 ‘치료 교육적 학교’로부터 개성신장과 소질계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대안교육은 제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문제유발 학생의 ‘불가피한 선택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치와 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부모·학생의 ‘자발적 선택지’인 셈이다.

일부 교육 관련자들이나 사회일반의 시각은 대안교육을 중도탈락자교육으로 단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대안교육이 편협하게 인식되게 된 데는 언론의 사려 깊지 못한 보도 탓도 있긴 하지만 그간 교육부가 추진해왔던 ‘학교 중도탈락자 대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교육부는 1996년 12월 발표한 교육부의 당초 구상은 대안학교를 중도 탈락자 학교와 동일시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안교육에 대한 이 같은 편협 된 인식의 확산은 후에 대안학교 설립시도에 대해 해당지역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현장이 확산, 소개됨에 따라 대안 교육에 대한 오해나 왜곡의 강도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주류 정서는 여전히 중도 탈락생 교육으로 한정시킨다.

2)재정

대안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이다. 현재 대안교육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차 대안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물질적 조건은 물론 재정부담 능력도 취약하다. 일부 제도화된 특성화대안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증설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학부모, 복지가의 후원으로 해결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안교육 운영주체들의 재정능력의 열악함은 결국 국가의 재정지원과 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간섭으로 연결되어 학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⁷⁶⁾

76) 윤구병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대안교육 운동 주체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정부 돈이 투입되는 이제 간섭이 들어와. 제대로 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를 써라, 또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써라, 등등 그렇게 간섭해 오지... 정부 돈이라는 게 늘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화폐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을 조심해야 해”(민들레, 제14호,

또한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도 취약한 재정능력으로 인해 애초의 문제의식을 실천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한때의 ‘유행’으로 머물게 할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시설과 교사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필요하며 다양한 특성화 과목의 개설, 외부강사 초빙, 학생들의 인성교육, 유능한 교사 확보, 전원 기숙사 생활 등 대안학교마다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의 인식, 가정형편, 이사, 재혼, 이민 등의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장학금, 후원금, 교사들의 월급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대안학교의 재정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3)교사양성

대안학교 교사양성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대안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신념과 철학, 특성화 과목, 지향점 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교사로서의 열정과 의욕,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위한 양성기관과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이라도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과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에서 인가된 대안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수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게다가 단순주입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재연구개발, 교육내용과 수업준비방법에 대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 24시간을 모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생활의 부재와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과 특성화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등 교사들의 급여 중 일부로 충당하는 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까

p.141.)

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1)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안교육 운동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부족과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고 대안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의식 있는 대안교육 운동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교육 제도에서 소외된 학생과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부각시키고 대안교육의 올바른 이해와 정부의 행, 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자는 사회적 불량품이 아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불량학생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대안학교 설립취지에 중도 탈락자 및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학교 부적응 의미도 일탈과 탈선의 의미보다는 엄격한 교육제도를 거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재정자립 노력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간섭과 규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재정자립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인가 받기 전에는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본래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대안적 기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가 후 정부재정 지원으로 인해 그나마 나아진 사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자유로운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 시수의 확보, 평가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교육과정의 엄격한 간섭과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안학교의 원래 이념과 취지를 약화시켜 학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학교들

이 자유롭게 대안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인 후원회비 모금, 학교 규모의 최소화, 자원 봉사자를 활용한 교사 인건비의 최소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정부의 안정적, 지속적 재정 지원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대안학교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안학교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지원은 확대하되 대안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교육자의 질(質)적 향상노력

교육에서 교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학생, 교육내용(교과)과 더불어 교육의 핵심적 요소이다. 교사는 교육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교사는 교육의 길을 학생보다 앞서서 지나간 사람으로 학생들을 교육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인 것이다. 듀이의 말을 빌리면 ‘교사는 언제나 신의 참 예언자요, 진정한 신의 왕국으로의 안내자이다’(Dewey, 1897).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이다.(Platon, 1974: Vol.6). 그러나 교사의 역할은 교육사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자유 교육에서 교사는 진리의 전달자이며 진리에 입문하도록 학생을 도야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의 흥미와 욕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세계로의 입문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현재의 자유를 무시하고 지적 도야를 위해 훈련과 복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이 교육 받은 결과로 진리의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과 안목을 갖추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육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이성적 능력과 안목은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대안 교육에서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욕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을 교육내용으로 정하고 학생이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대안학교들은 교사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質)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학교증설 또는 중학교 신설 등 외연 확대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안학교나 교육에 대한 논의나 의식들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자칫 대안학교의 경제성을 보고 뚜렷한 교육이념이나 철학 없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서 양적 확대만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원 수급과 훈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교육과정 정착 및 교사 질 관리’ 등에 우선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안학교의 교사 1명은 1개의 일반 학교에 비교될 수 있다. 그만큼 대안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 교육에 맞는 양질의 교사확보를 위해서 교사 양성 전문기관에 의한 교사양성, 지속적인 교사연수, 교사 재충전의 기회제공,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오늘날 아나키즘은 유토피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21세기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나키즘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간에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 이념으로서의 아나키즘은 해체되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을 차용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아나키즘은 정치이념이라기보다는 교육과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대표적인 예로 아나키즘은 자연론적 사회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과 공생에 기초한 자연공동체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교육문제에도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국가주도의 학교교육 비판, 근대학교 운동, 탈학교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아나키즘적 교육론은 현재의 교육 현실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 교육론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주장되고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국가 주도의 공교육에 대한 아나키즘의 도전과 자유교육학교에의 지향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각종 형태의 아나키즘적 교육 실험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대안학교가 실험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나키즘 교육사상이 현실에서 응용,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발도르프 학교, 풀무학교, 간디학교운영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아나키즘 교육사상의 요소 즉, 아동중심의 교육관,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 중시, 노작교육, 생명존중, 생태주의 사상 중시, 소규모 학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대안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대안학교라고 하면 문제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이 다니는 학교라는 편견으로 인해 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운동가들은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서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의 시각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안학교 교사 양성 및 처우개선을 들 수 있다. 일반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

육에 대한 갈증이 늘어가면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일반 학교와 달리 과중한 업무부담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오직 투철한 교육 신념 아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희생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방향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사연수, 교사 재충전 기회 제공, 경제적 지원 등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의 교육재정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작은 학교 지향, 다양한 특성화 과목의 개설, 외부 강사 초빙, 인성 교육, 교사 확보, 기숙사 생활 등 일반 학교와는 다른 학교 운영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 수익사의 확대, 적극적인 후원회비 모금, 학교 운영비의 축소화 등의 대안학교 자체 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안학교들이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재량성과 자율성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에 대한 아나키즘 교육론의 비판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철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왔던 국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과 국가의 관계를 거론한 것은 매우 도전적이며, 오늘의 교육문제에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또한 아나키즘의 국가에 대한 도전은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상실한 국가에 대한 채찍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 주도의 교육에 대한 위험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나키즘 교육론에 의한 대안학교의 운영은 기존의 교육 이론과 제도에 대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많은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주변 이론으로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 문제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과 교육 쇄신을 위한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대중,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 출판사, 2002
- 곽노의, 『자유 발도르프 유아교육』, 밝은 누리, 1999
- 구승희 외, 『아나키, 환경, 공동체』, 모색, 1996
- 김광한 역, 일리히 이반, 『탈학교 논쟁』, 한마당, 1984
- 김석원 역, 라이머, 『학교는 죽었다』, 한마당, 1982
- 김시완 역, 골드먼 엠마, 『저주받은 아나키즘』, 우물이 있는 집, 2001
- 김정아 역, 워드 콜린, 『아나키즘, 대안의 상상력』, 돌베개, 2004
- 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 방영준,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이학사, 2006
- 심성보 역, 캐리어 클라렌스, 『현대교육의 위기』, 한길사, 1987
- 심성보 역, 스프링 조엘, 『교육과 인간해방』, 사계절, 1985
- 이보형 편, 『미국역사의 새 발견』, 미토, 2004
- 이소희 역, 프레포지에 장,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출판사, 2003
- 이을규 역, 크로포트킨 피터,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창문각, 1973
- 서울평화교육센터 엮음,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 내일을 여는 책, 1997
- 양희규, 『꿈꾸는 간디학교 아이들』, 가야넷, 2005
- 이지현 외, 『개인, 공동체, 교육3』, 교육과학사, 1997
-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2001
- 이한, 『학교를 넘어서』, 민들레, 1998
- 임홍순 역, 볼프, 『아나키즘, 국가권력을 넘어서』, 책세상, 2001
- 정영근 외, 『교육의 철학과 역사』, 문음사, 1999

- 정진원 역, 리드 허버트, 『시와 아나키즘』, 형설출판사, 1983
- 정윤경,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학교』, 내일을 여는책, 2000
- 주옥로선생 회갑문집 간행회, 『진리와 교육』, 풀무, 1980
- 조준상 역, 쉬한 손,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4
- 하기락 역, 크로포트킨 피터,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신명출판사, 1993
- 홍순명, 『풀무학교 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1998

<논문>

- 구승희, “아나키즘과 환경”, 『한국아나키즘운동의 궤적과 21세기 전망』, 1995
- _____, “환경주의 이데올로기와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 『세계정치경제』 3호, 1996
- _____, “생태주의에서 에코 아나키즘으로”, 고대신문, 1999.11.
- _____,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우리시대 부활하는 아나키즘 패배와 단절의 역사를 넘어서』, 2004
- 김성국, “아나키즘과 문화”, 『아나키즘과 예술』, 2002
- 김은석, “아나키즘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21집, 1992
- _____, “아나키즘의 현대적 조명”, 『아나키즘연구』 2호, 2002
- 김원희, “국내 외 대안교육을 통해 본 한국 열린교육의 실천방향 모색”, 세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방영준,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_____, “아나키즘의 현대적 조명”, 『국민윤리연구』 제36호, 1997
- 송창규, “고드윈의 이성적 아나키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신중수, “대안학교에서의 생태주의 교육에 관한 비판적 분석: 풀무학교와 간디학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오주영, “아나키즘 자유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병환 외, “대안학교로서의 풀무학교 탐색”, 『중등교육연구』, 1998
- 이애희, “공자사상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연구』 2호, 2002
- 이종훈, “바꾸닌의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이종태, “대안교육의 철학적 기초 탐색(1)”, 『한국교육』, 1999
- 양희규, “대안학교의 현황과 전망”, 『교육연구』 제8호, 1998
- _____, “내가 간디 학교를 세운 이유”,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야 한다.』, 2001,
- 양희창, “간디학교가 꿈꾸는 것은?”, 『인물과 사상』 통권36호, 2001
- 여태전, “간디학교의 대안찾기: 그 삶과 교육에 관한 질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정현주, “아나키즘과 대안교육”,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차재원, “대안학교의 교육활동 비교 분석”, 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하기락, “아나키즘의 일반적 고찰”, 『서강/16』, 1986
- 홍성희,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1
- 허영록, “독일의 자유 발도르프학교”, 『교육개발』, 1997

<국외서>

Apter, David E., 1971, *Anarchism Today*, London; Macmillan

Avrich, Paul, 1967, *The Russian Anarchist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Bakunin, Michael, 1985, *Oeuvres*, Vol. I, Paris: Stock, 1985~1913

Bakunin, Michael, 1972, *Bakunin's Writings*, Guy Aldred, (ed), N.Y.: Kraus Reprint Co

Bakunin, Michael, 1975, *Michael Bakunin: Selected Writings*, Arthur Lehning(ed), N.Y.: Grovan Press

Bookchin, Murray, 1974, *The Limits of the city*, Montreal-N.Y.:Black Rose Books

Chomsky, Noam, 1987 *The Chomsky Reader*, James Peck(ed), N.Y.: Pantheon

Drucker, Peter F., 1989, *The New Realities*, N.Y.: Harper & Row.

Godwin, William, 1976, *Enquiry Concerning Political Justice I*, Cramnich(ed), London: Penguin Books

Goldman, Emma, 1970, *Anarchism and Other Essays*, N.Y.: Dover Publications

Goldman, Emma, 1980, *The Failure of the Russian Revolution*, in George Woodcock(ed), *The Anarchism Reader*, Collins: Fontana

Guerin, Daniel, 1970, *Anarchism from theory to Practice*, N.Y.: Monthly Review Press.

Horowitz, Irving L.(ed), 1970, *The Anarchists*, N.Y.: Atherton Press.

Illich, Ivan, 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Kropotkin, Peter, 1909. *Fields Factories and Workshop*, N.Y.

Kropotkin, Peter, 1910, "Anarchism",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 11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opotkin, Peter, 1969, *The Conquest of Bread*, N.Y.: Dover.

Kropotkin, Peter, 1970b, *Selected Writings on Anarchism and Revolution*: Kropotkin, Peter, Martin Miller(ed), Mass: The MIT Press.

Kropotkin, Peter, 1972, *The Conquest of Brea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Paul Avrich, London: Penguin Press

Prudhon, Pierre-Joseph, 1966, *What is property?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s*, N.Y.: H. Fertig.

Steiner, Max, 1980, *The Ego and His Own*, George Woodcock(ed), *The Anarchism Reader*, Collins: Fontana.

Thomas, Paul, 1980, *Karl Marx and the Anarchist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Thoreau, H. D. 1866, "Civil Disobedience", *Thoreau's a Yankee in Canada*, Boston: Tickor and Fields.

Tolstoy, L, 1967, *Tolstoy's Writings on Civil Disobedience and Non Violence*, N.Y.: Signer Books.

Ward, Colin, 1966, "Anarchism as a Theory of Organization", *Anarchy* 92, Vol.6.

Ward, Colin, 1973, *Anarchy in Action*, London: Allen & Unwin

Woolf, Robert Paul, 1970, *In Defense of Anarchism*, N.Y.: Harper & Row.

<기타자료>

간디학교 홈페이지, [http:// gandhi.wo.to](http://gandhi.wo.to)

발도르프학교 한국 홈페이지, [http:// Waldorf.or.kr](http://Waldorf.or.kr)

풀무학교 홈페이지, [www, poolmoo.or.kr](http://www.poolmoo.or.kr)

A Study on the Anarchism Education and the Practice
-Focused on Alternative School-

Kwang Seon -Kim

Major in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Bang Young Jun

The history of education we usually know is history of preexisting public education. It ignores the critical tradition of education. Criticism on public education, specially the criticism on the nationalistic authoritarianism has been initiated by anarchism led by Godwin in 18th century and Goodman, Illich, Rymer, Gore, Freire and etc. But it has been ignored. As Anarchism is interested in development of social system that improve autonomy of individuals that denies the nation that destroy the autonomy. and denies the political structure for privileged class includ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became means to justify their exploitation and denies authoritative system. The denial of school can be the whole denial of system itself but it is usually insisting new place where learning is taking place . The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that we are going to study here, is suggested as one of the substitutions.

The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has old origin of ideology. We can find the origin in pacifism and internationalism and above all in the democratic ideology(no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s a system). But in this study,

we do not mention these ideology, as they are known universally already. The origin of educational thought is from Rousseau but the most direct effect is from anarchism. It is more accurate ideology to translate it as autonomy rather than anarchism . And it is opposed to nationalism.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review general anarchism and the educational thought of it and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anarchism and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The educational thought of anarchism is not informed well in Korea. Even the people who have a dislike for the anarchism cannot ignore its influence to ideology, arts, and education. For instances, we consider anarchism is the origin of Spanish Civil War, Student Movement in 1968, ideological movement leading to recent deconstruction of Michael Foucault, most avant-garde of 20th century, and educational movement of Illich and Freire after 19th century. Modern liberal education movement began after Student Movement in 1968. It influenced enormously to the whole society and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 that led to change of concept in education area and judicature which were most conservative areas.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and judicature is very important in the point of view that they are fundamental system maintaining society. But they are still most conservative areas in process of democratization today.

We started with following questions about our education. "Are they real that our stereotype of education, so to speak, schools are made by the nation =learning with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s, and competition for taking examinations is beneficial to train life, and nation centered education which is same to all children is democratic, and all the teachers that nation appointed are superior to students, and teachers of ability can make obedient children by punishment with good intentions?" About

these, we think that liberal education is, so to speak it is upright education to bring up students who can make their own decision, and today that is symbolized for examination competition is making slaves rather than human beings, and ability grouping and teaching is democratic to all children, and teachers are equal to students. and teachers of ability are helping children's liberal growing. The genuine education is learning human relations by oneself in community lives with liberty and equality rather than fear and threat.

Here we are going to review the typical form of alternative education, and find the meaning in anarchism to make it a clue to solve our educational problems. The alternative education we explain here is exceptional even in the advanced countries where liberal education is general, so it seems like an impossible illusion to our educational system that not being liberal is general. There can be questions like " Is it meaningful to introduce such a extreme liberal education in a country that nationalistic education has been settled?" IT is impossible to experiment education, but it can be helpful for solving our educational problems by review the alternative education that was already groped for in the advanced countries for change of way of thinking based on experimental mind.

In this study, we analyzed literature and studies about anarchism and alternative educations using descriptive approach and ideographic method which are generally used in social science, and the scope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 chapter 1 is introduction that includes review and description of the goal and method of this study and the scope of constitution.

In the chapter 2,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theory that includes background of the origin of anarchism and relation between

anarchism and education .

In the chapter 3, we analyzed the practice and problems of theory of the anarchism education focusing on alternative education. We analyzed the alternative school that is practice of the theory of anarchism education and examples of our alternative school and the operation form of it, and compared and analyzed it with present public education to draw suggestions.

In the chapter 4,as a result part, rough summary and result of this study are included to be clear at a glance.